

調查分析 98-07  
APEC 연구시리즈 ⑧

#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李載裕 · 李載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國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KOPEC)

調查分析 98-07  
APEC 연구시리즈 ⑧

#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李載裕 · 李載榮

1998. 10.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國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KOPEC)**



## 서 언

---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는 APEC은 아·태지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번영을 목표로 1989년에 출범하여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APEC은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질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내면서 이제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정부간 경제협력체로서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다. 출범당시 12개국에 불과하던 회원국도 1998년 정상회의부터는 21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협력분야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단순 경제·기술협력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무역·투자자유화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협력 이슈를 다루는 역내 경제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PEC이 아시아 금융위기 등 역내 주요 관심사를 협의해 나감으로써 역내 및 세계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APEC의 역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 APEC은 비전과 계획단계를 지나 이행단계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최근들어 APEC은 제반 계획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APEC의 목적중 하나인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의 이행가속화를 위한 활동 및 연구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원은 APEC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의 APEC 관련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APEC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부디 본 연구 시리즈가 APEC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 민간 및 학계의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연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998年 10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李景台

## 국문 요약

---

금년부터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 및 대 APEC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러시아의 대외 정책 변화 속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러시아와 APEC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교류 현황을 검토한 후에 러시아의 구체적인 대 APEC 정책 방향을 고찰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이 갖는 의의와 향후 APEC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과거 구소련은 태평양지역의 통합과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93년 말부터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한 주 요인들로는 ① 아태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정치·경제적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대, ② APEC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무역,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의 확대, ③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을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구소련/러시아는 이미 1988년에 소련 아태협력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PECC와 PBEC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은 APEC 관련 업무

를 수행할 APEC 업무담당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와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 및 투자협력은 APEC의 잠재력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러시아는 APEC의 활동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무역 및 투자자유화, 경제 및 기술협력 등 사실상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APEC을 실질적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전개를 위한 효율적인 메카니즘으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는 APEC 내에서 가장 유망한 상호협력 분야들로 ① 에너지, ② 운송, 통신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③ 투자협력, ④ 인적자원, ⑤ 경제 및 기술협력 분야 등을 꼽고 있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군사·정치적 상황의 안정을 강화시켜줄 것이고, APEC의 무게중심을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APEC의 과제를 무역자유화에만 귀착시키려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입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술이전에 관심이 높은 APEC내 개도국들의 입지가 다소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PEC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APEC 가입은 아직까지 단순히 APEC에 참여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분간 APEC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러시아와의 양자간 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이제 APEC내에서의 다자간 수준에서도 경제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은 러시아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과 기술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Abstract

---

## **The Background of Russia's Joining the APEC and Russian Policy toward the APEC**

Jae-You Lee · Jae-Young Lee

As Russia has joined the APEC this year, it would have an important effect not only on the APEC itself but also on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ake a contribution for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the desirable policy toward both Russia and the APEC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background of Russia's joining the APEC and its policy toward APEC.

For this purpose, w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Russia's joining the APEC in terms of change of Russian foreign economic policies in Chapter 2. In Chapter 3, first, we will examine what kinds of organizations the former Soviet Union/Russia had operated in order to join the APEC before it became a member of the APEC. The situation of Russ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member nations of the APEC will also be examined, focussing on the size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s cooperation of Russia in the APEC forum. And then, we will examine the direction of Russian policy toward the APEC in various aspects since its entry to the APEC. Finally, the significance of Russia's admission to the APEC will be contemplated and the prospects of its effect on the APEC will be presented in Chapter 4.

The major motivations of Russia's joining the to APEC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ncrease Russia's role and influences for overall political, economic processes in the Asia-Pacific area. Second, in order to increase

Russia's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nations of the Asia-Pacific area in terms of mutually beneficial trade, investments and cooperation in scientific technology. Third, in order to create a favorable precondition for Russia to solve the socio-economic problems in Siberia and the Far-Eastern area.

Evaluating the APEC highly since activities of its member nations are fairly open and voluntary and it covers broad range of activities such as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s, econo-technological cooperation, Russia looks upon the APEC as a very efficient mechanism for actu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is area. Russia regards energ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investments cooperation, human resources and economic, technological cooperation as the major promising field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e APEC.

Russia's entry to the APEC can help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litical security in the Asia-Pacific area and move the center of activities of the APEC to Asia, especially North East Asia. Furthermore, it can offer a more favorable situation to the developing nations in the APEC that are more interested in technological cooperation, controlling the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 S. A. that intend to put priority on trade liberalization among the major objectives of the APEC.

However, despite Russia's firm declaration that it would be faithful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APEC, it seems that Russia's joining the APEC has been significant only in a political aspect, not in an economic aspect, so far. So, Russia's entry to the APEC cannot have fundamental influences on the APEC economically for a while.

In the future, Korea should make more aggressive efforts to produce favorable condi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at multilateral levels through the APEC as well as to increase mutual cooperation with Russia at a bilateral level. Korea should not neglect the cooperation in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to which Russia gives priority, and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get technology transfer from Russia.

# 목 차

---

I. 서론 .....	11
II.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 .....	14
1. 대외정책의 변화 .....	14
2. 아태지역 협력의 중요성 .....	20
3. APEC의 가입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입장 .....	28
III.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	34
1.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구도 및 활동 .....	34
가.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 .....	34
나. PECC와 PBEC 가입 및 활동 .....	37
다. APEC 관련 정부조직 .....	39
2. APEC 회원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	41
가. 무역협력 .....	41
나. 투자협력 .....	47
3.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방향 .....	51
IV. 결론: 전망 및 시사점 .....	58
참고문헌 .....	64
부록 .....	71

## 표 차례

〈표 II-1〉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APEC과 유럽의 비중(%)	27
〈표 III-1〉 러시아와 APEC 회원국간의 교역추이	44
〈표 III-2〉 러시아와 APEC 하위지역별 교역비중(%)	45
〈표 III-3〉 1994-96년 러시아 극동의 교역구조	45
〈표 III-4〉 러시아 극동의 주요 교역국과 교역량	46
〈표 III-5〉 對 러시아 주요 투자국(누계) (1998.1.1. 현재)	49
〈표 III-6〉 러시아의 CIS 역외국가들과의 수출입 상품 구조	54

## 그림 차례

〈그림 III-1〉 연도별 러시아의 평균 수입관세율 변화	57
---------------------------------	----

# I. 서론

---

1997년 11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베트남, 페루와 함께 APEC 회원국으로 채택되었다. 동 회의에서 기존 18개 회원국의 지도자들이 APEC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기 위해 2007년까지 향후 10년간 APEC의 신규회원국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사실상 마지막 버스를 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에서 더욱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 포럼에 정상수준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참여하려고 지향해왔던 러시아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일단락 되었다.

러시아에 있어서 APEC 가입은 러시아의 국제경제관계에서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제 러시아의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및 기타 회원국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금년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제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태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입지가 강화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아태지역국가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여 러시아로서는 APEC 가입이 국제무대, 특히 아태지역에서 포스트소비에트 국가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또한 러시아의 APEC 가입 채택은 APEC 회원국들이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시장경제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러시아를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서 동등권을 가진 파트너

로 인정하며,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가 세계경제에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1998년부터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평가하면서 러시아 외교의 '대승리'로 보고 있다.<sup>1)</sup>

러시아의 APEC 가입은 APEC 회원국들에게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 주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가입함으로써 APEC의 경제협력의 북쪽 지역이 크게 불어나 APEC의 외형적 규모가 현저히 확대되었다. 이제 21개국으로 구성되는 APEC은 대략 세계 GDP의 60%, 총교역량의 50%,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거대한 지역경제협의체가 되었다.

그러면 러시아의 APEC 가입이 APEC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APEC 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해 오고 있는 한국으로서 당연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과 대 APEC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러시아의 아태지역 통합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4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떠한 것들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90년대를 전후하여 기존의 대서양중심 대외정책에서 아태지역 강조의 대외정책으로 변화하는 러시아의 일반적인 대외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에 있어서 아태지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가능한 APEC내의 역할구도를 그려보기 위해 러시아의 APEC 가입

1) *Известия*, 27 ноября 1997г.

에 대한 기존 회원국들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 APEC 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소련/러시아가 APEC 가입을 위해 그동안 활동해왔던 APEC 관련 조직의 구조와 활동을 살펴보고, 현재 러시아가 과연 APEC 회원국들과의 역내 경제교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무역 및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에 APEC에 가입한 이후 러시아의 구체적인 대 APEC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루어 볼 것이다. 끝으로 4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이 갖는 의의와 향후 APEC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전망해 봄과 동시에 그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 II.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

---

### 1. 대외정책의 변화

과거 오랫동안 구소련/러시아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 경험과 교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쌍무적인 무역·경제 교류 협력에만 국한하면서 태평양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통합과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1985년에 실시된 뼈레스트로이카 이후에 구소련은 아태지역에 대한 태도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6년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외부세계에 극동지역을 개방하고 극동지역을 아태지역으로 편입시킨다는 태평양 우선의 대외정책을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노선의 주요 정치적 목표들은 그 당시 동 지역에서 존재했던 ‘핵무기를 가진 거지’로서의 소연방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아태지역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소연방의 위상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sup>2)</sup> 그러나 어쨌든 그 시기 소련의 방침은 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관련된 정치적인 조치들로서 미국과 지구적인 군사 전략적 대립을 완화하는 과제들에 종속되어 있었다.

구소련의 총수출에서 극동지역의 비중은 5-7% 이하였고, 구소련의 전체

---

2) В. Михеев, “Российские подходы к проблеме участия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1, 1997, p. 27.

대외무역량에서 아태지역의 비중은 8-10%를 넘지 않았다. 소련붕괴 이후 러시아의 총대외무역량에서 아태지역의 비중은 12-13%로 약간 증가하였지만, 소련도 러시아도 아태지역 국가들의 역내무역 총액에서 0.7-1%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sup>3)</sup> 더욱이 러시아는 사실상 1992년까지 최신기술에의 접근 및 그 이전, 투자활동, 기술 및 생산협력, 인력양성 등의 측면들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거대한 기술적, 경제적 측면들과는 사실상 접촉하지 못했다.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 이후 약 1년 동안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다양하고도 복잡한 국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에 기반하여 실행되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그룹에의 가입과 민주주의적 국제공동체로의 통합 목적을 추구하였던 대서양 지향 노선의 영향을 지극히 많이 받았다. 엘친 대통령은 체제개혁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내외적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희망하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지속적인 개혁에 서방으로부터의 외자유치가 필수적이라 보았기 때문에 이 당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연합을 지향한 ‘친서방주의’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아태지역은 보다 덜 중요하게 보였고 그다지 유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1992년에 들어와서 일련의 국제정치 흐름과 아시아지역의 중요성 증대는 결국 러시아 외교의 일방적인 서구지향적 대외정책 목표에 수정을 요구하였다. 1992-1993년 기간동안 러시아의 대외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변화된 세계체제 내에서 자국의 위상과 역할의 재설정, 국가체제로서 생존 및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들의 평가, 그리고 거시적인 국가사회적

3) А. Н. Бубенников, А. А. Бубенников, “Электронная глобализация и НИС АТР,”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 1996, p. 40.

목표의 설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비판과 논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그동안 체제개혁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서구에 대한 러시아의 각종 지원 요청이 국제무대에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친서방적인 ‘타의적 개혁’은 기대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의 상실과 자국의 안보에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거세어지기 시작하였다.<sup>4)</sup>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의 상실을 우려한 엘진 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실된 위치를 복원하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하여 1993년에 일방적인 자유주의적인 슬로건과 친서구지향적인 대외정책 경향이 매우 느리긴 하지만 점차로 극복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0월 사태의 종결과 연이어 연방의회 선거가 진행되었던 1993년 말에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1993년 12월 新헌법의 채택과 아울러 대통령 중심적 외교정책이 수립되면서 CIS 및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다변화 외교전략 혹은 ‘분산전략’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과학원 IMEMO의 연구자들은 1992년 말-1993년 기간동안 전통적으로 모스크바의 높은 관심 분야인 군비통제 및 신뢰조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ASEAN 지역포럼(ARF)의 창설, 핵문제와 관

4) 예컨대 바짜노프와 스파게비치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미국 등 서유럽국가들과의 일방적인 관계강화는 오히려 러시아의 국제적 위치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동남아 국가와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공업국가, 그리고 CIS 諸國과의 관계강화를 요구하였다(이영형, “러시아 외교정책의 성격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1집 2호, 1997, p. 347).

련된 한반도의 긴장고조, 그리고 APEC의 활성화 등 아태지역에서의 일련의 사건 전개가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아태지역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그당시 끊임없이 저하되는 강대국의 역할에 대한 강한 향수와 또 이전에 의심하지 않았던 경제협력을 포함한 서구와의 협력에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시기적으로 잘 맞았다고 보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아태지역에 대한 위상 및 역할의 강화와 경제적인 부흥이라는 과제가 러시아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로 대두되었고 1994년부터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이 증대하는 시기로 기록된다. 이 시기에 러시아 대외정책 엘리트의 전반적인 입장변화는 한마디로 친서구적인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러시아의 국민적 국가적 자아정체성과 ‘국가발전의 고유한 길’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6)</sup> 이는 엘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고유한 지정학적 위치, 즉 유일한 유라시아국가라는 점이 러시아와 세계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한다고 보면서, 러시아는 동서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러시아의 독특한 역사적 사명이고, 유럽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 과정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의 심화와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알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미국 및 서유럽과의 관계에 우선 순위를 두었던 꼬지레프 노선은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상실시켰다는 점 때문에 보수주의적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야당으로부터도 극심한 비판에 처하게 되었다. 1996년 대통령 선거 직전 재선에 나선 엘친의 인기도가 최

5) A. B. Загорский и др, *Россия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часть 1)*, ИМЭМО РАН · The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NIRA), Москва, 1997, p. 11.

6) 강봉구,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초변화 및 전망(1992-95),” 『국방논총』, 국방연구소, 1995년 가을호 참조할 것.

하위였을 때(20%의 주가노프, 12%의 야블린스키에 비해 8%였음<sup>7)</sup>) 열린 대통령 선거는 외무부장관을 뿌리마코프프로 교체하였다. 뿌리마코프 장관은 선임자의 노선을 변화시킬, 그것도 모두가 느낄 정도로 두드러지게 변화시킬 의무가 있었고 이는 무엇보다 서구와의 관계를 수정하면서 러시아의 국익과 러시아의 ‘초강대국’ 지위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모스크바 支局이 1996년도에 러시아의 정부기관 간부들, 연방회의의 대의원, 정치지도자 및 학자들(103명의 러시아 대외정책 엘리트의 핵심인사들 및 전문가)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sup>8)</sup> 응답자 가운데 유라시아국가로서의 러시아에는 대외정책 분야에서 독특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993년의 44%에 비해 52%로 증가한 반면, ‘서구주의자’들의 비중은 1993년의 51%에서 41%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뿌리마코프의 외교는 기존의 대외정책 방향을 급변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1996년 1월 뿌리마코프 외무장관이 등장하면서 러시아에서의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심화되었다. 뿌리마코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확보를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의 대외전략은 CIS 諸국가와의 우호적 동맹관계의 조성, 동유럽 및 서구제국과의 건설적인 관계의 형성, 아태지역을 비롯한 지역블럭에의 적극적인 참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sup>9)</sup> 특히 뿌리마코프 장관은 1996년 7월 19-25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안보문제 아세안지역포럼에서 아세안

7) *Известия*, 1 января 1997г.

8) В. Петров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ежи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АТР: варианты российского участия,”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5, 1997, pp. 22-23.

9)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6 апреля, 1996г.

역내 모든 국가와 선린·우호관계를 역설하면서, 최근에 중국, 일본, 미국, 인도, 아세안 제국가, 인도차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이러한 러시아의 일반적인 전략노선은 최소한의 재원과 노력을 지출하는 속에서 최대한 폭넓게 아태지역 전체 부분에 참여 혹은 존재하는 소위 ‘분산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의 조건하에서 아태지역의 강대국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소규모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매우 중요시하는 대외전략이 러시아를 위한 최적전략이라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6년 6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러시아 대통령 교서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신조’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라시아적 원칙이 강하게 천명된 문서이다.<sup>10)</sup> 현재의 지정학적 경계 및 영토의 강화와 세계정치에서 러시아의 충분한 역할과 위치의 보장이 1996-2000년 기간동안의 러시아의 국가안보정책의 주요 과제이고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선적인 대외정책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국제환경의 보장과 또 지역협력 메카니즘의 활용에 의거하여 세계무대에서 러시아의 군사 정치적 및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이 서유럽 및 미국 지향에서 특별히 아태지역으로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심이 부여되는 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10) 이 교서는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주요 정책을 ① 시베리아와 극동의 발전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포함하여 아태지역에서의 국제 정치, 경제 및 군사 조직들로의 보다 완전한 통합, ②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동반자 관계의 확대, ③ 중국과의 선린관계의 유지 및 21세기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역동적인 발전, ④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및 협력 조성을 위한 노력의 활성화 등으로 규정하였다(Послание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М., 1996, pp. 9-23;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4 июня 1996г.). 그후 2년이 지난 지금 필자들이 보기에 러시아의 그러한 정책들이 거의 실현되었다고 보여진다.

배경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부 대표들은 러시아의 동부국경의 안정과 안보 보장, 러시아의 개혁을 위한 유리한 대외적 조건의 창설 그리고 또 지역의 통합과정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의 창설에 귀착된다고 한다.<sup>11)</sup>

아태지역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주요 결과는 러시아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지역의 주요 강대국들과 선린 우호적 관계를 보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장기적인 기초에서 동쪽 국경의 안보가 보장되고, 극동의 발전을 위한 대외 정치적 조건이 개선되고, 러시아의 전반적인 국제적 입지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은 더욱 더 아태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절대금액과 비중이 증가한 것과 러시아의 시장체제개혁의 진전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협력 형태들이 심화되고 있음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러시아가 대외정책에서 동쪽을 선택하는 것이 시대적인 좌표가 되었지만 이는 서쪽을 무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유럽과의 관계를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아태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유럽지역국가들과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전향적인 발전이 지속됨과 동시에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 2. 아태지역 협력의 중요성

APEC이 출범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APEC과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파상적인 성격을 보여 주었다. 80년대에서 90년대로 전

11) В. И. Денисов, "Россия в АТР.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4-5, 1995, p. 80.

환하는 시기에 구소련에서 주장되었던 유럽과 아시아의 ‘架橋’ 정책은 곧바로 아태지역에 대한 외교적 절제로 대체되었고, 그 뒤에는 다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APEC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처럼 러시아가 아태지역으로의 통합노선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APEC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의 원칙적인 입장을 전환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러시아의 APEC 가입은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러시아가 처한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서 동 지역이 향후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아태지역 국가들의 발전과 협력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시켜 이들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향후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역할로 보고 있다.<sup>12)</sup> 이러한 협력의 목표는 러시아의 동부지역들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으로 끌어들이고 통합시킴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여 부흥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영토의 약 80%와 러시아 국경의 70%, 천연자원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바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태지역 국가들로부터 수십년 동안 격리되었다. 이 기간동안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12) 이러한 사실은 제 29차 PBEC 총회에서 러시아의 대표들이 발표한 보고서들의 공통된 내용이 「1996-2005년 극동 및 바이칼동부의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연방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러시아 동부지역들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 의해서도 입증된다(A. Гранберг, “Россия в Тихоокеан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роль РНКТЭС,”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1997, p. 8).

경제발전 수준은 현저히 도약한 반면,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중앙정부의 부족한 투자, 러시아 중앙지역들과의 원거리, 교통·통신 및 기타 인프라의 미발달, 미약한 이주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장 낙후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토록 불리한 상황들이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정책 뿐만 아니라 국내정책에서도 우선 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만일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의 대내외정책에서 시베리아와 극동 경제지역의 가속적인 발전과 아태지역 파트너들과의 통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선 순위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간에 이미 드러나 심화되고 있는 경제관계의 파열은 위험한 성질을 갖게 되어 결국 중앙과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과의 정치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그러므로 현재의 조건하에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적인 투자를 급속히 증대시키든지 아니면 동 지역을 아태지역 경제,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편입시켜 외국인투자의 유치율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sup>14)</sup> 그러나 시장 경제 체제개혁 과정에서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속에서 러시아는 필요한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평가에 의하면, 2005 년도에 아태지역의 국가들의 해외투자는 연간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고, 그 후 연간 6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인 바, 그 때 러시아는 연간 120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15)</sup>

이렇듯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세계경제 체제로 완전히 편입시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러시아

13)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Эдиториал УРСС, Москва, 1998, p. 219.

14) M. L. 티타렌코, 극동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한·러관계: 러시아측관점, 『중소연구』, 한양대 중소기업연구소, 통권 70호, 1996, p. 276.

15) *Вики*, No. 148(7727), 11 декабря 1997г., p. 2.

의 지역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을 균등화하고 또 시베리아와 극동에서의 원심력적 경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열린 대통령은 1996년 4월에 「1996-2005년 극동 및 바이칼동부의 사회·경제발전 계획」을 승인하였다.<sup>16)</sup> 요컨대 러시아는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을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및 정치에서 러시아 입지의 강화 및 경제잠재력의 안정적인 증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생각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중요성의 증대는 새롭게 열린 대외경제적 가능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보의 심화에 의해서도 기인한다.

특히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잠재력의 급증과 이미 감지되고 있는 러시아 국경지역들에서의 중국의 거대한 인구의 압력, 그리고 까자흐스탄을 포

---

16)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승인된 동 계획은 지역의 안정화와 경제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 극동지역 전체 경제력의 약 60%를 점하고 있는 군산복합체 기업의 민수화, 사회간접자본의 개선과 이에 기초한 주민의 유출방지 및 안정화, 지역의 아태지역 경제로의 편입에 관한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의 실행은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예컨대 1996년에 극동과 바이칼동부 지역에 대한 투자액이 35조 루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예정된 금액의 35%에 불과한 12조 루블의 투자만 이루어졌다. 만일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인프라의 발전에서 현저한 진전 없이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것이다(М. Титаренко, “С новым подходами навстречу XXI веку(Россия, Китай, Япония и США в АТР),” *Пробле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1, 1997, pp. 5-6; Anatoly Buri, “Russia’s East Getting into the World Econom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APR Countries,” *Far Eastern Affairs*, No.4, 1997, p. 42; 임양택,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북방진출 전략: 중국의 동북지구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아태경제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 논문집』, 아태경제학회, 1998. 5, p. 356).

함한 다른 CIS 국가들의 압력과 관련하여 동쪽에서 국가의 군사·경제적 안보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의해서도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는 APEC에 가입함으로써 지역의 안보와 안정유지에 관한 다자간 정치적 협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APEC 회원국들의 지도자들이 매년 국제포럼의 범위 내에서 비공식적인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 미국, 일본 및 중국간의 협의구조의 탄생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을 러시아 경제의 국제화·세계화를 전반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가 독립국가연합(CIS)의 중추이면서 태평양으로의 출구를 가지고 있는 CIS의 유일한 회원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태지역에 통합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는 CIS와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보다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유럽연합(EU)간의 운송을 포함한 무역·경제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sup>17)</sup> 그 결과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러시아의 무역·경제 관계의 강화가 최근 러시아의 최고 관심 지역인 CIS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에도 영향을 미쳐 CIS 역내의 자본 및 인적자원의 이동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넷째, 정치·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태지역 경제에서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전체 및 소지역별 통합과 다자간협력의 제도화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다.

17) Амиров Вячеслав, “Россия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Промышленники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No. 9, сентябрь, 1994, p. 2. 러시아는 APEC에 가입하면서 유럽과 아태지역을 잇는 ‘운송가교’ 역할을 자처하면서, 철도 운송료를 선박 운송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저히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 정책의 일환인데, 이번 러시아의 APEC 가입으로 머지않아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유리한 철도 운송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예측된다.

아태지역에는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조직들 외에도 소지역별 여러 무역·경제 협정이 환태평양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들 전체 및 하위 지역 그룹 국가들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도와 이들이 몇 개의 하위지역 구조에 동시에 가입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러시아는 사방에서 확대되고 있는 각종 경제적인 동맹과 협정 앞에서 이들 지역의 시장으로 진출할 때 무역·경제적인 입지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sup>18)</sup> 그러므로 러시아는 21세기에 세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생활의 중심이 될<sup>19)</sup>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을 “잡자다가 놓칠 수” 있다고 보고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한 논거로서 러시아는 종종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시장’의 창설 구상과 APEC에서 제기된 2020년까지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과제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관련하여 ‘아태지역에서의 게임’이 ‘EU에서의 게임’보다 더 편리한 법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즉 EU 가입을 가정할 때 러시아는 러시아 없이 만들어진 조건들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게 될 것이지만, 아태지역 공동체에서 수립되고 있는 경제적 행동 규칙들은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

18) 러시아 측의 평가에 따르면, 거의 모든 APEC 회원국들에서 비회원국들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제한이 작동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러시아의 손실은 최근 연간 3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시장에서 동등한 무역파트너가 되려는 희망이 러시아를 APEC에 가입하도록 자극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 높은 경제성장률, 증가하는 역내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흐름은 21세기에 APEC이 세계 경제성장의 축이 될 것임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В. Кистанов, “АТР на пороге века: к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сообществу ‘азиатским путем’?”,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1, 1998, p. 35).

20) В. Михеев, “Российские подходы к проблеме участия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1, 1997, p. 29.

일 뿐만 아니라 APEC에서는 각국의 개별 실행계획에 입각한 활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국의 특수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태지역의 통합 메카니즘을 구성할 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가능성을 유지한다는<sup>21)</sup> 점에서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러시아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태지역과의 협력 강화 및 활성화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러시아의 거대한 대외경제관계의 잠재력을 열어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서유럽 쪽으로 편향된 경제관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최근에 심화된 EU와의 경제관계로부터 러시아의 의존성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sup>22)</sup>

소련붕괴 이후 러시아의 총대외무역량에서 아태지역의 비중은 12-13%로 약간 증가하였고 1997년에는 약 20% 가까이 육박하였지만, 러시아의 대외무역은 여전히 유럽지역에 편향되어 있다. <표 II-1>에서 보듯이, 최근 몇 년간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지역 국가들의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태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이 채 안되고, 더욱이 APEC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15-17%에 불과하다. 러시아 전체 영토의 불과 1/4 정도가 유럽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는 아직까지 주로 유럽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무역이 서유럽에 편향되어 있는 러시아는 아태지역이 앞으로 세계무역의 거대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보면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에 러시아의 교역과 투자 및 기타 협력분야에 약

21) 특히 러시아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는 자신의 역할을 이러한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다(A. Гранберг, “Россия в Тихоокеан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роль РНКТЭС,”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1997, p. 6).

22) 이재영,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러 경제협력의 미래,” 『중소연구』, 21권 2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1997, p. 105. 참조할 것.

〈표 II-1〉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APEC과 유럽의 비중(%)

	1995년		1996년		1997년 상반기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APEC	18.6	18.5	12.9	15.2	14.9	15.5
EU	33.6	38.4	32.2	34.5	33.6	32.5
중동구유럽	13.7	11.0	14.8	8.6	16.5	10.0

주: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 기준.

자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аможенный комитет РФ, *Таможе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996 года*, 1997; *Таможе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1, 2 Квартал 1997 года)*, 1997의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간의 수정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지역의 비중을 다소 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sup>23)</sup>

요컨대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태지역 경제에 근본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APEC에 가입한 주 요인들로는 ① 정상수준을 포함하여 아태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참여할 가능성의 확보와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정치·경제적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대, ② APEC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무역,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의 확대, ③ 사회·경제적인 문제, 특히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전제조건을 창설, ④ 전지역적 통합 과정으로부터 더 한층 낙후될 위험성의 예방, ⑤ 유럽 편향의 대외무역의 균형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견고한 입지를 구축

23)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외무성의 한 관리는 러시아의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에서 향후 유럽지역과 아태지역의 비중이 비슷해지면 APEC의 가입을 통한 러시아의 과제는 수행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L. G. 아브라모프 박사와의 인터뷰, 모스크바 외무성, 1998. 2. 26).

하지 않고서는 세계공동체에 정상적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점과 반대로 태평양국가 공동체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러시아는 세계 전체적인 정치·경제 과정에 대한 역할과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러시아의 독특한 유라시아적 잠재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러시아의 아태지역 경제로의 통합은 역사적인 명령이고 러시아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의 궤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APEC의 가입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입장

9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 정상회의에서 베트남, 페루 및 러시아의 신규회원국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의 두 국가의 가입은 쉽게 해결되었던 반면, 러시아의 가입은 매우 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베트남과 페루의 가입과는 달리 러시아의 가입은 향후 APEC내 역할구도와 동 조직의 성격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회원국들이 있어 회원국들간의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밴쿠버에서 진행된 APEC 고위간부들의 사전협의 과정과 APEC의 외무부 및 통상부장관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가 심해져 러시아의 가입을 낙관할 수 없었다. 즉 러시아의 APEC 가입은 매우 극적으로 진행되었다.

APEC의 외무부 및 통상장관 회의에서 APEC 신규회원국들의 채택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APEC 회원국으로 채택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일본의 오부치 외무장관 역시 그토록 중요한 대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이 러시아의 가입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멕시코와 칠레도 ‘강대국에 대한 특별한 취급 태도’에 반대를 표명하였고, 뉴질랜드 외무부장관 돈 맥킨논도 간접적으로 이들을 지지했다.<sup>24)</sup> 결국 미

24) *Известия*, 27 ноября 1997г.

국의 대표가 중국 외교부장의 제안을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의 가입이 채택되었다.

APEC의 ‘남쪽 측면’을 대표하는 호주, 남미국가들은 러시아를 아태지역국가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유럽국가로 간주하고 있다.<sup>25)</sup> 더욱이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를 불충분한 시장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역내의 무역 및 투자 흐름에 미약하게 편입된, 즉 역내에서 매우 부진한 경제관계를 가진 유럽국가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외에도 이들 국가들은 모스크바의 APEC 가입은 조직 내에서 세력균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적으로 아시아국가들이 우세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보여진다. 만일 APEC이 합의제에 의거하여 모든 결정을 채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적지 않게 중요한 반대요인일 것이다. 더욱이 APEC 창설의 진원지에 있었던 호주와 뉴질랜드는 APEC을 자신들의 이익을 큰 소리로 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반대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APEC의 독특한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익숙해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및 기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역시 모스크바의 가입은 APEC 조직 내에서 힘의 균형을 파괴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26)</sup>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미국, 일본, 중국,

25)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유럽인들은 러시아를 아시아국가로 보는 반면, 아시아인들은 러시아를 유럽국가로 본다는 점이다.

26) 러시아 의회제출용 한 보고서에는 ASEAN이 러시아의 APEC 가입에 대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예컨대 두 강대국의 대결을 대신하여 미국이라는 하나의 초강대국의 헤게모니가 나타나는 위협이 발생했을 때 ASEAN 회원국들은 ASEAN 외무장관 연례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하기 시작했듯이, 러시아의 국제적인 가능성을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태평양의 다른 강대국들에 대항하는 평형추로서 지역안보 문제의 해결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러시아 의회제출용 비공개 보고서).

그리고 러시아로 구성되는 ‘4대 강국’이 절대권을 가진 일종의 ‘정치국’을 창설하여 강압정책을 펼 가능성과 정치분야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가치를 다른 국가에 강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러시아를 APEC에 가입시켰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동시에 일부 동남아국가들은 러시아를 아태지역에서 다른 강대국들을 억제하기 위한 버팀목으로써 이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sup>27)</sup>

위와 같이 러시아의 APEC 가입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던 다수의 회원국들과는 달리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APEC 내의 소위 ‘빅 3’ 국가와 한국 등이 러시아의 APEC 가입을 지지하였다. 이 덕분에 가능성이 미진하다고 여겨졌던 러시아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은 원칙적으로 러시아의 파탄과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에 있어서 향후 유리한 사건의 전개 추이는 러시아가 시장체제개혁과 민주화 노선을 유지하고 러시아와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이 세계경제 관계로 충분히 편입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고립과 전면적인 약화를 목표로 하는 다른 정책은 새로운 대결의 위험을 내포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1997년 말 러시아를 ‘G8’에 받아들일 때 미국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결국 워싱턴은 모스크바를 지구적인 파트너로서 확고히 하고 러시아를 서구의 가치관에 기초한 그룹으로 깊이 통합시키려고 한다. 더욱이 워싱턴은 러시아를 아태지역으로 보다 심오하게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지역안보 분야에서 견고한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

27) 예를 들어 미국의 주도에 반대 경향을 띠고 있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러시아의 APEC참여는 향후의 논의에 ‘매운 양념’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Кистанов В., “Россия, Япония и АТЭС,”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9 апреля, 1998, p. 6).

28) В. Савельев, “США-ЕС-Росси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9, 1997, p. 24.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입각하면서 무엇보다도 反중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로서 최근에 출현한 미-일 군사협력이 심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운신의 폭을 넓히고 NATO의 동방확대 문제 등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하였을 것이다.<sup>29)</sup> 또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중-러 경제협력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공동보조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평가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2010년경에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2배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21세기에 에너지자원에 대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란 점에 비추어 볼 때<sup>30)</sup> 중국은 경제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가 APEC의 다른 국가들 보다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미국, 중국과는 달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스크바의 APEC 참가에 가장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이 러시아의 APEC 가입에 가장 커다란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가입을 결정한 주도국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급속한 입장 변화의 근본 원인은 작년 7월에 하시모토 총리가 공포한 ‘유라시아 외교’ 프로그램의 새로운 노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본질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소위 ‘실크로드’라는 구소련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의 관계를 조직

29) 이러한 논거는 1996년 4월 엘친 대통령의 중국방문에서 이루어진 합의에서 찾을 수 있다. 엘친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중국측은 NATO의 동방확대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를 표명하였고 아태지역의 경제조직체들에 러시아의 완전한 참여와 아태지역의 다양한 하위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보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러시아의 보다 폭넓은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И. Рогачев, “Россия-Кита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бращение в XXI век,”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No. 4, 1996, p. 8).

30) В. Кистанов, “АТР на пороге века: к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сообществу ‘азиатским путем’?,”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1, 1998, p. 36.

하는 데 있다. 이 때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관계발전 노선을 선포하였고, 이는 쌍무관계에서 분위기 개선을 가져와 영토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하시모토 총리는 동년 11월 그라스노야르스크에서 개최된 옐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2000년까지 평화조약의 체결에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APEC 가입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러시아의 가입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APEC 전체 회원국들에게 보냄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sup>31)</sup> 이러한 사실은 양국이 평화조약의 부재와 쿠릴 열도 4개섬 영토 분쟁 때문에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양국의 정치관계를 수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의 지지는 러시아의 거대한 에너지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국 에너지 수요의 80%를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중동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이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사할린 대륙붕의 석유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이르쿠츠크 가스산지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또 ‘일-러 정부간 에너지위원회’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4가지 측면에서 러시아의 APEC 가입이 타당하다고 보았다.<sup>32)</sup> 즉 첫째, 그동안 러시아가 APEC의 원칙과 목표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고, 개별실행계획(IAP)의 준비작업을 해 오는 등 가입의지, 국내적 준비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둘째, 러시아가 아태경제권에 확고히 편입될 경우 역내의 경제적 번영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큰 기여를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셋째, 러시아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량이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31) Валерий Кистанов, “Россия, Япония и АТЭС,”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9 апреля 1998, p. 6.

32) 외교통상부 자료

또 러시아가 극동지방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런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넷째, 그동안 체제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러시아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을 포함한 APEC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 한국은 러시아의 APEC 가입을 지지하였다.

# III.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

## 1.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구도 및 활동

### 가.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역내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아태지역으로부터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구소련은 1988년 3월 ‘소련 아태협력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동 조직은 태평양지역에서 소련방의 대외경제협력의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조정할 사명을 띠고 있었다.<sup>33)</sup>

소련방 해체 이후 동 위원회는 ‘러시아 아태협력국가위원회’로 잠시 개칭되었다가 1992년 8월 21일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된 소련 아태협력국가위원회 설립자들의 권리의무 계승자 특별회의에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로 다시 개칭되어 이전의 위원회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게 되었다. 동 회의에서 위원회의 新정관이 채택되었고 신규회원 가입이 있었으며 지도조직들이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조직으로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 위원회는 UN체제 외부에서

---

33) “Лицом к Востоку, не поворачиваясь при этом спиной к Западу,” *Новое время*, No. 18, 1988, p. 16. 정부, 경제, 대외경제, 사회정치, 학술 기관 및 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당시 소련방 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장이었던 뿌리마코프가 회장직을 역임했다.

가동되면서 아태지역 내에서 경제적 상호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조직들에게 러시아연방의 대표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 러시아의 유일한 사회조직이 됨으로써 ‘환태평양’에서 구성된 국제경제협력구조에 진출하는 유일한 통로를 소유하게 되었다.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는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경제에 효율적으로 편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을 주요 과제로 하는 사회조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sup>34)</sup> 첫째, 대외적인 기능으로는 러시아의 공식대표로서 아태지역의 국제경제조직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 대내적인 기능으로는 아태지역국가들의 경제발전과 통합의 긍정적인 경험을 러시아에 보급·전파하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아태지역 국가들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확대·증진함에 있어서 극동과 시베리아의 발전 및 이들 지역의 대외경제관계의 발전 문제가 동 위원회의 대내외 활동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회원은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의 정관이 요구하는 정부, 학계 및 업계의 대표들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극동의 지역간협회에 포함되는 전체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초에 이미 위원회는 160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 위원회는 사실상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전체 행정기관들, 지역간 경제협력 협회로서 각각 13개 및 19개의 연방 주체들을 포함하는 「극동 및 바이칼동부 지역간 경제협회」 및 「시베리아협정(시비르스꼬예 사글라쉴니예)」의 회원들, 외무성·대외경제관계성·경제성·상공회의소 등 일련의 중앙부처들 및 비정부기관 그리고 기업들(전체 회원의 50% 이상임)로 구성되어 있다.<sup>35)</sup>

34) РНКТЭС, *Рос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осква, 1995, p. 4; А. Гранберг, “Россия в Тихоокеан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роль РНКТЭС,”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1997, p. 3.

35) *Рос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 회의가 최상위 지도 조직으로 1년에 한번 소집되고 긴급한 문제의 논의를 위해 특별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중간에는 국가위원회의 사무국<sup>36)</sup>을 통해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의 간부회가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의 당면 활동을 지도한다.

간부회는 위원회 의장, 1명의 제1 부의장, 4명의 부의장(제1부의장과 부의장 가운데 한 명은 각각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의 극동지역 센터와 시베리아지역센터를 대표한다<sup>37)</sup>), 책임비서, 간부회 회원 그리고 실무그룹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현재 러시아 과학원 학술원 정회원인 A. G. 그란베르그가 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자금은 가입비와 회비를 통해 조달되고, 그 금액은 위원회 회의의 결정에 따라 책정된다.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 산하에는 PECC의 실무그룹과 유사한 실무그룹들이 가동되고 있다.<sup>38)</sup> 즉 ① 과학 및 기술, ② 교통,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관광, ③ 에너지 및 광물원료, ④ 무역정책, ⑤ 인적자원, ⑥ 농업정책, 무역 및 발전, ⑦ 어업분야의 협력 및 발전, ⑧ 지역의 경제 발전 전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야별 실무그룹에서는 공동 프로젝트의 준비, 노하우의 교환, 금융재원의 모색, 거시경제분석,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우선 순위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ничеству*, Москва, 1995, p. 8.

36) 1992년 8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은 상공회의소에서 러시아 외무부 관할로 이양되었다.

37)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의 정관과 회의의 결정에 따라 동 위원회의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센터가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하바롭스크와 노보시비르스크에 위치한다. 이들 센터들은 1992-1993년 기간동안 러시아의 극동지역들과 연방중앙간의 역할 재분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8) *Рос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осква, 1995, p. 9.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는 PECC와 PBEC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제조직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러시아의 국가적 및 지역적 이익을 주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계, 재계를 비롯하여 러시아 전반적으로 아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 나. PECC와 PBEC 가입 및 활동

소련 아태협력국가위원회는 출범 초기에 무엇보다도 아태지역의 주도적인 조직체인 PECC와 접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 가입을 목표로 삼았던 반면, 당시 보다 성숙되었지만 ‘사유재산 소유자’의 모임이라 간주되었던 PBEC는 러시아의 국가적인 관심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점차 실무그룹들을 통한 PECC와 PBEC 참여국들의 상호작용이 러시아의 이해관계와도 관련된 아태지역의 통합을 조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면서 러시아는 PECC와 PBEC 가입을 지향하였다.<sup>39)</sup> 특히 PECC와 PBEC에서 발생한 태평양의 ‘개방적 지역주의’ 사상이 지역의 통합을 세계화의 요소로 해석하고 또 세계경제의 발전을 지역의 경제동맹들의 점진적인 통일과 상호침투로 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러한 사상이 유라시아적 위치로

39)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의 보고서에는, “PECC, PBEC, APEC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사업활동에 본질적으로 가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러시아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적혀 있으며, 또 위원회가 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조직들에 ‘참여하면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형성되어 있는 사업환경으로의 적극적인 편승(참여), 통합된 기술 및 상업 정보 은행(데이터 뱅크)에의 접근 및 현대의 유망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들을 조직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세계적인 경험의 획득 가능성이라 기록되어 있다(Рос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осква, 1995, p. 5).

인해 자신의 통일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유럽연합으로도 아태지역으로도 모두 통합되려고 노력하는 러시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고유한 것이라 인식하여 동 조직들의 가입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리하여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는 1992년에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9차 PECC 총회에서 PECC의 정회원이 되고, 1994년 5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7차 PBEC 총회에서 PBEC의 정회원이 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이러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인 비정부 및 非UN 경제조직의 잠재력을 이용할 모든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PECC가 APEC에서 움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고, PBEC가 APEC과 대기업들간의 관계에서 사실상 집단적인 협의회 및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는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미 APEC에서 자신의 권위 있는 안내자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정부간 포럼인 APEC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그동안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는 PECC와 PBEC 회원으로서 1992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PECC 9차 총회에서 채택된 ‘개방적 지역주의’에 관한 선언부터 시작하여 지역통합의 원칙, 형식, 방안에 관한 문서들을 작성하는 데 참여해 오면서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가 인정하듯이 PECC와 PBEC의 특별위원회와 실무그룹들에의 저조한 참여와 낮은 적극성 때문에 러시아의 PECC, PBEC의 활동은 미약한 상태다. 예를 들면 환태평양 20개 국가들을 대표하는 1,153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PBEC는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50개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국가위원회를 대표하는 러시아의 PBEC 회원들 가운데는 극동과 시베리아의 중형기업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PBEC 내의 협력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0)</sup> 그러므로 러시아가 아태지역에

서의 통합과정의 다양한 형태들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sup>41)</sup> 그러한 과정의 조직화 및 조정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다. APEC 관련 정부조직

1995년 3월 APEC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APEC 가입을 위한 러시아의 외교가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1996년 2-4월에 APEC의 에너지 협력, 해양자원의 보호 및 어업, 무역 및 투자 통계, 인적자원, 산업과학 및 기술, 정보통신 등 7개 실무그룹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해 연말에 전자의 3개 실무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6년 7월에 뿌리마꼬프 외무장관이 영도하는 APEC의 업무에 관한 정부 부처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외무부, 경제부, 재무부, 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무역·경제, 금융 및 과학기술 분야의 다자간협력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연방 정부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외무부장관에 의하면, APEC 활동의 경험 연구, APEC 회원국들에 러시아의 경제 및 대외무역제도의 소개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작업이 현저히 이루어졌다.<sup>42)</sup>

이제 APEC에 가입한 이후 러시아는 APEC 업무와 관련된 국가 조직기구를 창설하면서 APEC 전체 참여국들의 경험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

40) A. Гранберг, "Россия в Тихоокеан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роль РНКЭС С,"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1997, p. 9.

41) 실질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정부, 재계 및 학계 대표들은 예컨대 두만강개발계획, 일본해개발 프로젝트, 몇 개국을 통과하는 가스관, 전력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건설 프로젝트, 사할린 석유가스 자원개발 등 다자간 프로젝트들의 개발 및 실행과 관련된 통합활동 형태에 참여하고 있다.

42) O. Ivanov, "RUSSIA-APEC: A New Stage of Cooper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43, No. 4, 1997, p. 172.

다.<sup>43)</sup> 최근에 20개 이상의 연방부처 대표들이 참여하는 「APEC 업무담당 정부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러시아 담당 관리들의 견해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의 각료 가운데 한사람이 그것을 영도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정부위원회의 과제는 러시아의 APEC 참여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형성된 이후 즉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한 긴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① 러시아의 APEC 참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② APEC과 그 실무조직들의 다양한 활동 방향들에 대해 책임지는 핵심 부처들을 결정하는 것, ③ APEC 업무담당 위원회 사무국의 기능과 관련된 조직·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아마도 러시아 외무부의 하위조직들 가운데 하나가 그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④ APEC의 실무협의회에 러시아 대표들을 정해 승인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향후 주요한 문제는 러시아가 APEC의 활동에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이는 러시아정부의 APEC 관련 부처 및 관청들의 이해관심과 포럼의 실무그룹 및 위원회들에 의해 개발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그들의 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

43) 러시아는 올해 모스크바에서 APEC 문제에 관하여 일본, 미국, 중국과 협의를 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고위관리회의(SOM) 과정에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멕시코, 베트남, 페루와의 협이가 있었다. 러시아는 그 결과를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APEC 전체 참여국들과 정기적으로 그런 협의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 2. APEC 회원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 가. 무역협력

그동안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상호 유리한 무역, 과학기술 및 기타 협력관계의 발전이 러시아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라고 정기적으로 밝혀왔다. 1991년에 소연방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약 200억 달러였는데, 1992년에는 소연방 해체와 급진개혁 등 불안정한 요인들로 인해 러시아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95억 달러로 급속히 감소했다가<sup>44)</sup>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300억 달러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미국과 72억 달러, 중국과 56억 달러, 일본과 55억 달러, 한국과 약 40억 달러 그리고 태국, 대만, 싱가포르와는 각각 약 10억 달러 수준을 상회하였다.<sup>45)</sup> 이와 같이 실제로 90년대에 들어와서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상호 교역량은 평균 1.5배 증가하였고, 다수의 국가들과는 몇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가 일부 수출입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아태지역의 경제에서 현저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44) Н. Соловьев, "Сибирь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4, 1993, p. 29.

45) А. Гранберг, "Россия в Тихоокеан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роль РНКЭС,"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1997, p. 5.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표 III-1>의 통계와는 지나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1>에서 보면, 1995년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미국과 약 69억6천 달러, 중국과 약 42억4천만 달러, 일본과 약 39억4천만 달러, 한국과 약 12억 5천만 달러, 태국, 대만 및 싱가포르와 각각 약 4억4천만 달러, 5억5천만 달러 및 7억6천만 달러를 이루었다. 이러한 통계상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수출입에서 각종 불법통관이 성행하고, 비공식무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1997년도 러시아의 10대 교역국 가운데 아태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2개국에 불과하고 이들은 러시아 총교역량에서 각각 6.2%, 3.8%를 차지하였다.<sup>46)</sup> 러시아의 비공식무역<sup>47)</sup> 가운데 3/4을 차지하는 거대 10대국에도 아태지역 국가로서는 중국과 태국 2개국만이 포함되었다.

세계무역의 약 50%에 해당하는 아태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아태지역은 러시아 수출의 22.1%, 수입의 15.1%(APEC 국가들의 비중은 러시아 수출의 18-19%, 수입의 15-16%임)를 차지하는데 불과하고 또 아태지역 국가들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중은 오직 0.4%, 수입은 0.8%에 불과하다.<sup>48)</sup> 이러한 이유는 90년대 들어와서 실시된 급진적인 경제개혁 과정에서 러시아의 GDP가 약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선진국을 제외한 다수의 아태지역 국가들의 GDP는 거의 배가되어 이러한 그룹의 국가들에 있어서 러시아의 상대적인 비중은 4배 가량 줄어들었다는 점에 가장 크게 기인한다. 그 결과 1991년까지 구소련이 아태지역 국가들 가운데 GDP 규모상 3위였으나 현재 러시아는 7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어쨌든 러시아와 아태지역의 교역은 아태지역의 잠재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에 의거하여 계산해 보면,<sup>49)</sup> 러시아의 대외무역량에서 APEC

46)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중국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총액은 61억 달러였다. 현 금거래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종전의 중요한 거래형태였던 구상무역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양국 정부는 수출입구조 개선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년 1-5월 기간동안 교역구조를 보면 원자재 무역의 비중이 낮아지고 공업제품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화학공업, 전자공업, 중기계제작, 자동차산업, 항공기제작공업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러시아의 화학비료, 곡물, 압연강재의 對 중국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한러시아극동협회 정보센터,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뉴스』, 제53호, 1998. 8. 18, p. 12).

47) 소위 '보따리 무역'을 통해 러시아가 수입하는 비공식 무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48) A. Гранберг, "Россия в Тихоокеан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роль РНКТЭС,"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5, 1997, p. 5.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16.5%, 1996년에 17.4%, 그리고 1997년 상반기에는 15.1%였고, 1998년 5개월 동안에는 16.0%<sup>50)</sup>였다. 이처럼 아직도 러시아의 대외무역은 지나치게 서유럽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 APEC내 하위지역들간의 교역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III-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도별로 다소 굴곡이 있으나 동북아의 비중이 절반 가량 차지하여 가장 높고, 그 다음 NAFTA/남미가 36-40% 정도, ASEAN이 7-12%, 대양주가 1-2%에서 다소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아태지역 경제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매년 제품생산량이 감소하는 속에서도 대외무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비교적 저렴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극동지역의 대외무역량은 대략 1992년에 27억 달러, 1993년에 30억 달러, 1994년에 31억7천만 달러, 1995년에 34억2천만 달러, 1996년에 3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sup>51)</sup>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역구조를 보면 <표 III-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출품목은 원료 및 1차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동 지역의 수출에서 그 비중은 1995년에 80%, 1996년에는 60%를 차지하였다. 극동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은 목재, 어류, 철 및 비철금속, 광석, 연

49) 필자들은 러시아의 통계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러시아연방 관세청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50)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No. 30 июля, 1998, p. 27.

51) O. Sviridov et al., "Foreign Trade of the Far East of Russia," *Foreign Trade*, No. 4-6, 1998, p. 21; Anatoly Buri, "Russia's East Getting into the World Econom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APR Countries," *Far Eastern Affairs*, No.4, 1997, p. 43.

〈표 Ⅲ-1〉 러시아와 APEC 회원국간의 교역추이

(단위: 천 달러)

국 가	수 출			수 입		
	1995년	1996년	1997년 상반기	1995년	1996년	1997년 상반기
(1)동북아	8,065,059	9,533,683	3,419,272	2,310,605	2,900,199	1,207,046
한국	747,205	1,184,787	288,777	502,080	799,560	328,148
일본	3,172,793	2,914,521	1,284,606	762,555	977,975	371,801
중국	3,371,421	4,722,167	1,606,337	865,423	1,002,721	447,514
홍콩	310,620	216,984	121,551	92,322	47,168	15,528
대만	463,020	495,224	118,001	88,225	72,775	44,055
(2)ASEAN	1,977,451	1,209,203	482,266	466,858	476,544	230,683
싱가폴	489,957	570,419	106,899	267,741	228,308	81,313
태국	389,213	220,709	84,215	54,199	54,099	40,367
말련	572,456	119,324	77,059	17,314	47,963	37,225
인니	80,940	33,004	25,145	81,408	102,643	56,716
필리핀	122,638	143,748	76,433	8,170	11,514	4,507
브루나이	-	-	-	-	-	-
베트남	322,247	121,999	112,515	38,026	32,017	10,555
(3)대양주	30,638	12,226	6,236	246,214	241,432	198,938
호주	29,188	7,475	2,483	135,039	98,949	42,961
뉴질랜드	1,450	4,751	3,753	111,175	142,483	155,977
PNG	-	-	-	-	-	-
(4)NAFTA						
/남미	4,518,384	4,985,741	1,967,021	2,992,669	3,350,754	1,753,162
미국	4,315,253	4,839,228	1,871,927	2,647,870	2,901,199	1,543,111
캐나다	121,305	91,097	56,632	222,404	340,546	152,958
멕시코	28,492	14,332	25,669	27,549	34,818	21,728
칠레	21,482	27,354	5,126	71,339	43,392	14,963
페루	31,852	13,730	7,667	23,507	30,799	20,402
對APEC(B)	14,591,532	15,740,853	5,874,795	6,016,346	6,968,929	3,389,829
對세계(A)	78,217,000	84,988,000	39,440,000	46,709,000	45,917,000	21,821,000
역내비중 (B/A), %	18.66	18.52	14.90	12.88	15.18	15.53

주: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

자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аможенный комитет РФ, Таможе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996 года, 1997; Таможе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1, 2 Квартал 1997 года), 1997의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표 Ⅲ-2〉 러시아와 APEC 하위지역별 교역비중(%)

	1995년	1996년	1997년 상반기
APEC 전체	100.0	100.0	100.0
동북아	50.4	54.8	49.9
NAFTA/ 남미	36.4	36.7	40.2
ASEAN	11.9	7.4	7.7
대양주	1.3	1.1	2.2

자료: 〈표 Ⅲ-1〉에 의거하여 작성.

〈표 Ⅲ-3〉 1994-96년 러시아 극동의 교역구조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1994년		1995년		1996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목재 및 그 제품	322.3	14.7	470.6	21.5	412	23
기계설비	100.4	689.6	306	780	961	650
연료-에너지 제품	271.2	34.5	305.4	85.4	366	-
어류 및 수산물	364	-	235	-	224.5	101
식료품	-	530.2	-	599	-	594
금속 및 비철금속	227.1	46.7	145.7	42	124	96
광석 및 농축광	87.1	-	92.4	-	62	-
석유화학 제품	33.2	65.4	42.4	71.1	41.4	85
소비재	-	125.2	-	168	-	81.5
기타	199.8	61.7	56.5	2.2	59.1	7.5
제품 전체 총액	1,605	1,568	1,654	1,769	2,250	1,638
무역량 총액	3,173		3,423		3,888	

자료: O. Sviridov et al., "Foreign Trade of the Far East of Russia," *Foreign Trade*, No. 4-6, 1998, p. 21.

료-에너지 제품 등이다. 특히 1994-1996년 기간동안 극동지역의 수출품에서 기계설비 제품의 수출이 연간 3배씩 증가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주로 극동지역의 군산복합체 기업들에서 생산되는 항공기 장비 및 기타 설비의 수출 증대에 기인하였다. 반면, 극동지역의 주요 수입품목은 식료품과 기계설비 제품으로 극동지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은 1995년에 78%, 1996년에는 76%였다. 이 외에 극동의 주요 수입품목은 소비재로 1996년 그 수입금액은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0%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100개 이상의 국가들과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교역량의 대부분은 아태지역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4>에서 알 수 있듯이, 1996년에 약 38억9천만 달러에 달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총교역량 가운데, 중국이 9억5천4백만 달러, 일본이 8억8천만 달러, 한국이 6억9백만 달러, 미국이 4억6천9백만 달러, 홍콩이 4천7백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표 Ⅲ-4> 러시아 극동의 주요 교역국과 교역량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1994년		1995년		1996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일본	890	198	782	181	734	146
중국	253	192	205	155	746	208
한국	138	227	155	218	333	275
스위스	20	28	38	10	74	5
미국	27.6	233	14	397	45	424
독일	9.1	171	17	199	3	79
홍콩	20	13.5	23.6	11.6	44	3

자료: <표 Ⅲ-3>과 같음

반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역량에서 CIS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

마다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역량에서 CIS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의 7.7%에서 1995년에는 4.5%, 1996년에는 3.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CIS 지역과 러시아의 유럽지역이 극동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운송비가 높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에 따르면 운송비 요소 하나만 하더라도 이들 지역으로부터 극동지역으로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을 30-40%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52)</sup>

전반적으로 볼 때 러시아의 APEC 회원국 전체와의 교역량은 그 경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외무역은 약 70-80%가 아태지역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관계가 러시아의 중앙지역과 CIS국가들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시장으로 지향하면서 아태지역경제에 통합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 나. 투자협력

최근 아태지역 국가들의 자본이 참여하는 수천 개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고, 수십 개의 투자 및 금융·신용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다. 평가에 따르면, 90년대 중반에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자본이 참여한 약 400개의 합작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의 극동지역에는 1,000개 이상의 외국인 자본이 참여한 합작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sup>53)</sup>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태지역 국가들의 러

52) O. Sviridov et al., *Ibid.*, pp. 20-22.

53) O. Ivanov, "RUSSIA-APEC: A New Stage of Cooper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43, No. 4, 1997, p. 172. 비교를 위해 예를 들면 소련 붕괴 전인 90년대 초 해외에 소련 자본이 참여한 합작기업은 약 300여개로 이들 회사에 투자된 총액은 20-25억 달러에 달했다. 그들 중 반수 이상(64.3%)이 서유럽에 있었고, 14.4%가 미국, 13.3%가 아시아, 4.3%가 아프리카, 그리고 3.7%가 오스트리아에 있었다(М. А. Холдин, В. Д. Андрианов, "Бегство Капитала из России

시아와의 투자협력은 유럽국가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 Ⅲ-5〉에서 보듯이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투자협력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매우 부진하다. 1998년 1월 1일 현재 세계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약 99억 5천만 달러이다. 대 러시아 직접투자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비중 면에서도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큰 폭으로 물리치고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초 현재 러시아 국가등록부에 3천개 이상의 미-러 합작기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러시아에 등록된 외자 참여 기업의 전체 수에서 17%에 해당한다. 미국의 우선적인 대러 투자 분야는 석유채굴 및 가공, 식품산업, 기계제작, 경공업, 건설자재산업, 농산물 가공, 운송 분야 등이고, 이 외에도 방위산업의 민수화와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러 자본투자에서 가장 자본집약적인 석유 및 가스산지의 개발과 관련된 수출지향 프로젝트들이 전망 있는 분야이다. 1997년 말 현재 미국자본이 참여한 17개의 석유 및 가스채굴 합작기업들이 설립되어 있다.<sup>54)</sup> 1998년 초 현재 세계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누적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2.5%이다. 대 러시아 직접투자 규모 순위에서 10위에 들어가는 아태지역 국가는 미국뿐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 러시아 직접투자 거대국가들의 비중은 대 러시

---

и,” *Экономика и Общество*, No. 6, 1996, p. 15).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8년 초까지 허가된 러시아의 해외투자 총액은 110억 달러였고, 1998년 초 현재 러시아 자본이 참여한 해외기업은 약 2천 개에 달한다고 러시아 국가등록부에 기입되어 있다(В. Д. Андрианов,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России*, Москва 1998, pp. 149-150). 러시아의 자본수출가들 상당수가 경제부 산하 등록기관에 합작기업 설립 형식으로 자신들의 해외투자를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4) Андрианов В. Д.,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России*, Москва, 1998, p. 112.

〈표 Ⅲ-5〉 對 러시아 주요 투자국(누계) (1998.1.1. 현재)

(단위: 백만 달러)

	합 계		내 역		
		%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 투자
총 액	21,815.2	100	9,945.8	439.8	11,429.6
미국	6,227.6	28.5	4,229.7	33.7	1,964.2
영국	3,638.6	16.7	821.5	339.1	2,478.0
스위스	3,359.3	15.4	301.4	0.8	3,057.1
독일	2,536.3	11.6	766.0	1.9	1,768.4
네덜란드	836.5	3.8	174.1	0.9	661.5
키프러스	728.2	3.3	597.2	51.8	79.2
이탈리아	604.7	2.8	151.9	-	452.8
오스트리아	491.9	2.2	377.4	0.6	113.6
프랑스	407.6	1.9	399.8	2.2	5.6
스웨덴	389.7	1.8	234.2	-	155.5
일본	330.6	1.5	119.7	-	210.9
리히텐슈타인	275.1	1.3	271.3	0.0	3.8
벨기에	274.1	1.3	177.5	0.0	96.6
핀란드	254.4	1.2	181.1	0.2	73.1
캐나다	174.0	0.8	124.6	1.1	48.3
터키	138.9	0.6	124.9	-	14.0
아이슬랜드	111.4	0.5	106.4	1.8	3.2
모로코	99.2	0.5	0.0	-	99.2
말타	74.3	0.3	55.8	-	18.5
호주	57.4	0.3	56.7	-	0.7
덴마크	51.8	0.2	39.2	-	12.6
룩셈부르크	44.5	0.2	24.5	-	20.0

자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Ф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оссии (январь 1998г.), Москва, 1998, p. 114; 『ロシア 東歐 經濟速報』, No. 1088, 1998년 4월 15일 p. 4.

아 직접투자 누적총액에서 2-8%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sup>55)</sup>

1996년 말 현재 일본 자본이 참여한 약 400개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등록되어 있다. 러-일 합작기업의 75%는 러시아의 극동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 자본이 참여하여 설립된 기업의 60%는 중개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8%는 목재가공, 5%는 어류 및 농산물 가공, 4%는 경공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sup>56)</sup>

한국과 러시아간의 투자협력은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8년 초 현재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는 89건에 1억2천7백만 달러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7년 말 러시아 영토에 등록된 러-한 합작기업의 수는 115개 였다.<sup>57)</sup> 한국의 대러투자는 주로 무역업, 제조업, 수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1998년 1월 1일 현재 한국은 1억2천7백만 달러, 캐나다의 대러 직접투자 총액은 1억2천4백6십만 달러, 일본은 1억1천9백7십만 달러, 캐나다는 5천6백7십만 달러로 미국을 제외한 APEC국가들의 대러 투자협력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러시아와 동남아국가들간의 경제교류는 교역분야가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분야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대외무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에서도 아직 서유럽의 비중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경제력의 3/4이 아태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극동과 동시베리아의 최근 경제가 아직까지는 아태지역을 위한 충분히 성숙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으로 설명된다. 뿐만 아니

---

5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Ф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оссии*(январь 1998г.), Москва, 1998, p. 114.

56) Андрианов В. Д.,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России*, Москва, 1998, p. 121.

57) Андрианов В. Д.,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России*, Москва, 1998, p. 122.

라 아태지역 국가들과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의 발전은 교통, 에너지, 금융, 정보 등 인프라의 취약성으로 인해 최근 현저한 정도로 억제되고 있다.

### 3.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방향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서 무역·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야심찬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지만, APEC은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구축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21세기에 APEC이 아태지역의 발전전략을 결정하게 될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APEC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다.<sup>58)</sup> 또한 러시아는, 최근 일련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통합의 전제조건을 강화할 것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APEC이 세계경제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APEC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및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과 최신 금융 및 은행기관들과의 상호협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국의 상선, 석유 및 가스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항공운송에 의한 승객 및 화물의 수송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편입할 수 있고 또 지역 국가들에게 군사기술 제품의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APEC의 기본원칙과 활동 목표에 동의하고, 본 포럼에서의 주요 대화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각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APEC의 활동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무역 및 투

58) O. Ivanov, "RUSSIA-APEC: A New Stage of Cooper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43, No. 4, 1997, p. 169.

자자유화, 경제 및 기술협력, 에너지, 운송, 임업, 어업, 인적자원 문제 등 사실상 현대 경제문제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APEC을 실질적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전개를 위한 효율적인 메카니즘으로 바라보고 있다.<sup>59)</sup>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대외경제관계성 산하 아태지역 경제협력부 간부인 알렉세이 쉬멜레프는 러시아의 APEC 가입은 러시아로 하여금 태평양 이웃 국가들과 동등하게 교섭하게 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무역·경제관계의 자유화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러시아가 얻게 될 직접적인 이득을 대략 수십억 달러로 평가한다.

러시아는 APEC에 참여하면서 APEC 내에서의 협력이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고, 필요한 구조개혁 수행을 촉진할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 및 인적 잠재력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것이고, 러시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전체를 위해서도 발전이 매우 필요한 분야들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APEC 내에서 가장 유망한 상호협력 분야들로 ① 에너지, ② 운송, 통신 및 텔레컴뮤니케이션, ③ 투자협력, ④ 인적자원, ⑤ 경제 및 기술협력 분야 등을 꼽고 있으며 이들 분야를 우선 순위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는 APEC의 모든 다른 활동 방향들에 관한 실무그룹 및 논의 구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당분간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원료’ 부문의 의미가 증대할 것이라 보면서, 이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들과,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러시아가 실제로 아태지역의 경제에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sup>60)</sup> 또한 러시아는 군수산업의

59) *Известия*, 1997. 11. 27.

60) 현재 이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들은 야쿠츠크 천연가스개발(러시아, 일본, 미국), 사할린 대륙붕 천연가스개발(국제 컨소시엄), 사하-야꾸찌야-한국 가스관(러시아, 한국), 사할린-동남아-호주 가스관(러시아, 일본, ASEAN, 호주), 두만강 델타 개발(국제 컨소시엄), 베링해 터널(국제 컨소시엄), 일본해 연안에 위

민수화를 포함한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과 러시아의 과학기술개발과 기초 연구 성과물을 아태지역 국가들의 기업이 상업화하는 것을 매우 유망한 협력방향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97년 벤쿠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시 자발성(Voluntarism)과 신축성(Flexibility)의 원칙을 전제로 분야별 조기 자유화(EVSL)를 위한 15개 분야가 선정되었다. 이는 완구, 수산물, 환경제품 및 서비스, 화학, 임산물, 보석, 에너지, 의료장비, 정보통신 상호인정협정(MRA) 등 9개 우선 분야와 식품, 고무, 비료, 자동차 형식승인, 유지종자, 민간항공기 등 6개 검토 분야로 구분된다. 9개 우선 분야는 99년부터 시행되고, 6개 검토분야는 자유화 추진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되었다.

15개 EVSL 분야는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VSL 분야의 대부분이 러시아의 경제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제안보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에 속한다. 이 분야에서의 러시아의 입장은 현재 구성되고 있는 「러시아연방 APEC 업무담당 정부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조기 자유화에 속하는 많은 분야들 가운데, 특히 1999년부터 자유화가 시작되기로 계획된 9개 우선 분야는 러시아의 대외무역량에서 근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에너지, 어류 및 수산물, 목재, 비료, 희귀금속 및 보석, 화학제품 등에 대해서는 거대 수출국이고, 식품, 정보통신장비, 의료장비,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거대 수입국이다(표 III-6 참조).<sup>61)</sup> 따라서 9개 우선 분야의 대부분이 러시아의 수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관세 등이 인하됨으로써 러시아는 자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수

지한 지방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일본해' 프로젝트 등이 있다.

61) 러시아와 APEC 주요 회원국들과의 교역구조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할 것.

출업자, 및 소비자들도 상기 분야들에서의 대외무역 조건 개선에 객관적으로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표 Ⅲ-6〉 러시아의 CIS 역외국가들과의 수출입 상품 구조

(단위: 10억 달러)

	수 출						수 입					
	1994년		1995년		1996년		1994년		1995년		1996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총수출	53.0	100	65.6	100	71.9	100	28.3	100	33.1	100	31.8	100
기계, 장비 및 운송수단	3.2	6.0	5.3	8.1	5.6	7.8	10.6	37.6	12.8	38.7	11.8	37.0
연료-에너지 상품	22.8	43.1	26.4	40.2	33.7	46.9	0.8	2.9	0.9	2.9	1.2	3.8
금속, 희귀금속 및 그 제품	16.5	31.1	19.6	29.8	19.0	26.4	1.1	4.0	1.7	5.0	1.9	6.1
화학제품, 고무	4.1	7.8	6.3	9.6	5.9	8.1	3.1	11.0	3.8	11.4	4.9	15.6
목재 및 제지	2.2	4.1	3.9	5.9	3.1	4.3	0.5	1.7	1.0	3.0	1.4	4.3
섬유 및 섬유제품	0.9	1.7	0.8	1.3	0.6	0.9	2.2	7.6	1.6	4.7	1.4	4.3
피혁원료, 모피 및 그 제품	0.4	0.7	0.3	0.4	0.3	0.5	0.2	0.6	0.1	0.4	0.1	0.4
식품 및 농업원료	2.3	4.3	2.3	3.5	2.7	3.7	8.6	30.4	9.7	29.4	7.8	24.5
기타	0.6	1.2	0.7	1.2	1.0	1.4	1.2	4.2	1.5	4.5	1.3	4.0

자료: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1997, pp. 580-581.

그러나 조기 자유화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상기의 15개 조기자유화 분야들은 벤쿠버 정상회의 이전에 러시아가 APEC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APEC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는 점, 둘째, 러시아의 무역자유화 문제에서 다른 파트너들, 특히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CIS 국가들과의 상호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점, 셋째, 최근 러시아는 WTO 가입에 관한 교섭 상태에 있다는 점, 넷째, 현재의 경제개혁 단계에서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무역체제를 포함한 러시아의 대외

무역정책에 특수한 요구를 부과할 것이란 점이다.

러시아는 APEC의 원칙에 대한 충실성을 재차 확인하고 APEC 내의 모든 회담과정에 본질적으로 참여하며 협의체 내에서 이전에 채택된 합의의 수행을 지향할 것이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상기의 요인들을 APEC 회원국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러시아 측은 무역·투자원활화 조치와 경제 및 기술협력을 통해 경제활동 수행을 위한 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삼고 역내 회원국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동실행계획(CAP)의 준비 분야에서 APEC 활동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공동실행계획의 일반적인 방향성은 러시아의 반대를 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그것의 실행과 가일층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95년 APEC의 오사카 행동지침에서 결정된 것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sup>62)</sup>와 경제·기술협력(Ecotech) 추진 분야들<sup>63)</sup>로 구성되는 공동실행계획은 사실상 역내에서의 국제 경제교류의 주요 분야 전부를 포괄하고 있어 아태지역에서의 통합을 심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러시아는 공동실행계획의 각 분야에 관한 논의 구조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진보에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문제는 매우 종합적이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해명하고 러시아의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공동실행계획의 실행으로 인한 가능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야별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64)</sup>

62)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분야는 관세, 비관세조치,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 규정, 분쟁 조정, 경제인사 교류 증진,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상기 15개 분야에 포함된다.

63) 경제·기술협력(Ecotech) 분야는 인적자원개발, 산업과학 및 기술, 중소기업, 경제 인프라, 에너지, 수송, 정보통신, 관광, 무역 및 투자 데이터, 무역진흥, 해양자원보존, 어업 및 농업기술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64)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외무성 경제협력부에서 APEC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그동안 러시아는 APEC의 목표와 원칙에 충실할 것이란 의사를 표명하면서 APEC의 회원국으로 채택되기 이전에 이미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관한 개별실행계획(IAP)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관세규제 분야에서 점진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한 관세인하 구상, 대외경제활동의 상품 일람표의 개선, 일치된 상품의 기록 및 코드 시스템에의 가입, GATT/WTO의 규범에 따른 통관절차의 통일화, 관세분야의 주요 협정에 대한 참여 등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정부의 관세정책을 보면 재정수입의 증대와 국내생산자들의 보호<sup>65)</sup>를 위해 APEC의 기본취지, 특히 관세인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별실행계획(IAP)에 반하는 약 3% 정도의 관세인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수입관세는 1992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어 최근에는 평균 수입관세율이 약 14% 수준이다. 대다수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5%에서 30% 이내이고, 30%를 상회하는 사치품, 무기, 알콜음료와 1%인 곡물과 사탕수수가 예외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는 IAP의 이행 및 최종보고서를 금년 11월 18일 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는 APEC 내에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관한 개별실행계획의 작성에 커다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작업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제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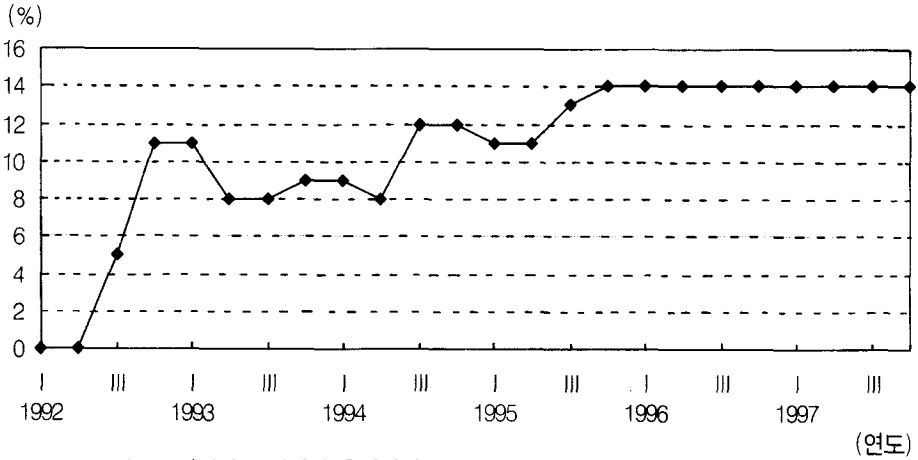
---

있는 아브라모프 박사는 EU에 비해 APEC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의 APEC 담당 직원들이 아직 APEC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면서 APEC의 경험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 하였다(L. G. 아브라모프 박사와의 인터뷰, 모스크바 외무성, 1998. 2. 26).

- 65) 러시아는 1994년 중반까지 수입관세가 너무 낮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이러한 낮은 수입관세율은 수입품을 러시아 국내시장에 판매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여 초기 자본축적 계층에 이득을 주었으나, 이제 러시아의 원시적 자본축적기가 어느 정도 끝난 현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본은 국내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까지는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고있는 실정이다.

APEC 정상회의 때까지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 연도별 러시아의 평균 수입관세율 변화



주: 1996년 2분기부터는 필자의 추정치임.

자료: А. Холопов, "Переходные экономики: реформа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политики," МЭМО, ИМЭМО Р АН, No. 1, 1998, p. 13.

## IV. 결론: 전망 및 시사점

---

그동안 APEC 가입을 위한 러시아의 지난한 노력은 금년부터 회원국이 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물론 이는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이 유럽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서구편향 정책에서 탈피하여 아태지역으로 더욱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제 러시아를 실제로 아태지역 국가라 부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러시아의 APEC 가입은 APEC과 더 나아가 세계경제로의 통합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지만 러시아의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의 속도, 규모 및 성과는 많은 점에서 러시아의 국내 체제위기의 극복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APEC 가입은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아태지역의 통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면 우선 이제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의 APEC 가입은 APEC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라도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로 구성되는 태평양의 '전략적 4강'이 APEC의 한 지붕아래 모인다는 것은 정치적 문제와 안보문제를 포함하여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는 아태지역에서 군사·정치적 상황의 안정을 강화시켜 줄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4강' 간의 불가피한 알력이 APEC의 과도한 정치

화를 초래하여 그 설립의 취지와 기본 목표를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러시아가 가입함으로써 APEC의 무게중심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이는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 가운데 시베리아와 극동의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역내에서 금융, 기술 및 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으로 자국경제를 근본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의 가입은 APEC의 과제를 주로 무역자유화에 귀착시켜 보호장벽을 인하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목표에 제동을 걸면서,<sup>66)</sup> APEC내 협력의 우선 목표를 발전수준의 격차를 줄이려는 기대, 즉 기술이전, 인력양성, 에너지, 교통, 통신분야에서의 협력 등 낙후된 부문을 선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다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APEC내의 개도국들은 기술이전,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에 관심이 많은데, 기존의 선진국들은 기술이전 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기술을 제공하려는 국가는 없고, 공급받으려는 국가만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군수산업의 민수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상업화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번 러시아의 APEC 가입으로 인해 APEC 내에서 기술의 공급자가 생기게 됨으로써 기존의 구도에 일정 정도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가입이 당분간 APEC에 대해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재 러시아는 APEC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당면 과제는 단순히 APEC의 모든 실무그룹에 참가하면서 기존 회원국들의 경험을 연구

66) 9개 우선 분야와 6개 검토분야 등 분야별 조기자유화와 관련된 제안과 안건의 처리 및 통과과정을 보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여 미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느낌이 강하다.

하는 것이라는 점과 러시아는 APEC 국가 내에서 아직까지 무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미약하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물론 보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러시아는 APEC 내에서 입지를 상실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즉 원료, 교통 및 운송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나가면서 협의체 내에서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향후 대 APEC 정책의 전망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적절한 낙관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우선 그동안 러시아의 정책입안자들과 실행자들의 APEC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대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기존에는 러시아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사회단체나 러시아정부의 하위관청 수준의 담당부서에서 APEC 관련 정부정책을 간접적으로 준비하고 반영해 왔으나, APEC에 가입한 이후 지금은 러시아의 중앙정부수준에서 직접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 임명된 뿌리마꼬프 총리는 과거부터 아태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또 그 중요성을 철저히 강조해왔기 때문에 분명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협력수준은 지금보다 현저히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러시아가 APEC의 모든 실무회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APEC의 업무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태도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셋째,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외무역의 약 70-80%가 아태지역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아태지역의 경제에 깊숙이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에 의해 러시아는 APEC 내에서 회원국들과의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러시아는 APEC의 원칙과 목표에 충실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APEC 내에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APEC 가입이 어느 정도는 단순히 참여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APEC에 가입한 이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주동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아태지역의 주요

조직에서 ‘참관’ 혹은 ‘배석’이라는 제한된 과제의 해결, 즉 정치적인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APEC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금융위기와 러시아 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고려하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APEC 내에서 러시아의 활약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향후 APEC의 각종 실행계획을 작성하면서 당분간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이행기경제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자유화에 관한 조치들의 규모와 심도에 관해 매우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의 APEC 담당관계자들은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기존 경험을 연구할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APEC의 궁극적인 목표로 인정하면서 자유화 조치에 있어서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나아가기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특히 무역자유화 분야에 있어서 러시아는 국내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 크게 개방하지 않으려고 한다. APEC 국가들에서의 평균 관세 수준은 9% 정도인데 비해 현재 평균 수입관세율이 14%인 러시아는 자국의 관세율이 APEC에서 평균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세인상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여주고 있다.

물론 APEC 회원국이 되면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과학 기술 및 기타 협력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해 러시아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아태지역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러시아의 교역 및 투자환경 개선과 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협력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그동안 양자간 수준에서 추진해오던 경제협력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APEC내에서의 다자간 수준에서도 한-러간의 경제협력에 유리한 조건들을 창출해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APEC 내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고, APEC 내에서 무역자유화만을 강조하는 미국 등 선진회원국들의 입장을 러시아라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기술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APEC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한국도 러시아와의 그러한 접촉과 협의를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 태평양국가경제협력위원회는 그동안 APEC 가입을 위해 상당한 활동을 해왔으며 러시아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회원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와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협력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통상관계 발전의 여건이 갖추어지기 이전이라도 선점자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역과 투자, 기술, 산업협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러시아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에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당분간 재원이 부족한 러시아의 아태진출 전략 모델에서 실질적인 출구는 결국 '원료-에너지 모델'이 최우선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록 러시아가 급진적인 개방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던 몇 년전 보다 조건과 전망이 덜 유망하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러시아의 뛰어난 기술을 이전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APEC 회원국 가운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제공하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던 기술이전을 러시아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

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면한 러시아의 경제위기 하에서는 무역 및 투자협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술이전이 보다 유망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분석과 평가』, 1997. 11.
- 재정경제원, 『APEC 발전과 과제: APEC 성과 및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1997. 11.
- 외무부, 『APEC』, 1997.
- 강봉구,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조변화 및 전망(1992-95)”, 『국방논총』, 국방연구소, 1995년 가을호.
- 남상정, “APEC의 현안과 각국의 전략,” 『APEC 신외교전략의 모색: 과제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토론 자료, 1998. 4. 10.
- 노재봉, “APEC 현황과 향후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 1권 1호(창간호), 1997, pp. 125-236.
- 유현석, “APEC를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경제협력의 가능성: 제도주의적 접근,”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4권 1호, 1998, pp. 211-236.
- 이영형, “러시아 외교정책의 성격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1집 2호, 1997, pp. 339-359.
- 이재영,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러 경제협력의 미래,” 『중소연구』,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1권 2호, 1997, pp. 97-124.
- \_\_\_\_\_, “개혁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현황과 외국인투자,” 『중소연구』, 한양대 중소기업연구소, 20권 2호, 1996, pp. 223-258.

- 이재유, “러시아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사회경제적 역할,” 『중소연구』, 한양대 중소기업연구소, 20권 2호, 1996, pp. 125-144.
- 임양택,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북방진출 전략: 중국의 동북지구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아태경제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 논문집』, 아태경제학회, 1998. 5, pp. 337-375.
- 채욱·안형도, “WTO에 대한 APEC의 기여: 한국의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 2권 2호(통권 3호), 1997, pp. 45-68.
- 티타렌코, “극동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한·러관계: 러시아측 관점,” 『중소연구』, 한양대 중소기업연구소, 20권 2호, 1996, pp. 275-295.
- 한러시아극동협회 정보센터,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뉴스』, 제53호, 1998. 8. 18.
- Alexander Granberg, “The Activity and Goals of the Russian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ar Eastern Affairs*, No.1, 1996, pp. 16-25.
- Anatoly Buri, “Russia Reforms Its Far Eastern Region Rely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ar Eastern Affairs*, No.1, 1996, pp. 40-45.
- \_\_\_\_\_, “Russia’s East Getting into the World Econom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APR Countries,” *Far Eastern Affairs*, No. 4, 1997, pp. 41-47.
- Georgi Gabunia, “Russia’s Economic Relations with APR Counties(Speech at the RPEC Conference),” *Far Eastern Affairs*, No.2, 1996, pp. 22-29.
- O. Sviridov et al., “Foreign Trade of the Far East of Russia,” *Foreign Trade*, No. 4-6, 1998, pp. 20-23.
- O. Ivanov, “RUSSIA-APEC: A New Stage of Cooper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43, No. 4, 1997, pp. 169-173.

Vladimir Yakybovski, "Russia and East Asia: Integration or Alienation? in The U.S. and East Asia," R Lho, ed.,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1996.

"Russia's Interests in Northeast Asia and the Prospect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NEA Countrie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Russia's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3, 1995, pp. 4-44.

"Conference of the Russian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ar Eastern Affairs*, No.1, 1996, pp.14-15.

Загорский А. В. и др, *Россия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часть 1)*, ИМЭМО РАН · The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NIRA), Москва, 1997.

Андрианов В. Д.,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России*, Москва, 1998.

Амиров Вячеслав, "Россия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Промышленники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No. 9, сентябрь, 1994.

Всеволод Овчинников, "Успеем ли Мы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3 января, 1998.

Бубенников А. Н., Бубенников А. А., "Электронная глобализация и НИС АТР,"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1, 1996, pp. 28-41.

Бурый А., "Реформ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1, 1996, pp. 42-46.

\_\_\_\_\_,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овлечение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в мировое хозяйство через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 странами АТР,"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4, 1997, pp. 51-56.

Брутенц К., "Россия и Восток,"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10, 1993, pp. 37-41.

- Габуня Г.,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АТР(выступление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РНКТЭС),”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2, 1996, pp. 3-9.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1997
- Гранберг А., “Россия в Тихоокеан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роль РНКТЭС,”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1997, pp. 3-15.
- Давыдов О., “Осваивая новые мировые рынк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1, 1996, pp. 31-39.
- Институт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АН, “Проблемы вхождения России в мировое хозяй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10, 1996, pp. 70-80.
-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 странами региона для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3, 1995, pp. 4-37.
- Институт США и Канады РАН,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и и мировые тенденции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Москва, 1996.
- Кистанов В., “Россия, Япония и АТЭС,”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9 апреля, 1998, p. 6.
- Кистанов В., “АТР на пороге века: к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сообществу “азиатским путем?,”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1, 1998, pp. 28-39.
- Кондаков А., Смирнов П., “Экономиче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Росси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2, 1997, pp. 89-95.
-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국회제출용 보고서)

“Лицом к Востоку, не поворачиваясь при этом спиной к Западу,” *Новое время*, No. 18, 1988.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 12. Декабрь, 1997.

Михеев М., “Российские подходы к проблеме участия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1, 1997, pp. 27-33.

\_\_\_\_\_, “Гамбит ‘анти-НАТО’ и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1997, pp. 31-43.

РНКТЭС, *Рос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осква, 1995.

Рогачев И., “Россия-Кита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бращенное в XXI век,”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No. 4, 1996, pp. 3-10.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Эдиториал УРСС, Москва, 1998.

Рос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No. 1, Москва, 1995.

Титаренко М., “С новым подходами навстречу XXI веку (Россия, Китай, Япония и США в АТР),”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1, 1997, pp. 3-9.

Петровский 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ежи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АТР: варианты российского участия,”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1997, pp. 16-30.

Потапов М., “О состоянии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в АТР,”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4, 1995, pp. 3-10.

Савельев В., “США-ЕС-Росси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9, 1997, pp.

- 14-25.
- Ситарян С. А., “Либерализм и протекционизм в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и,”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No. 6, 1997, pp. 110-147.
- Соловьев Н., “Сибирь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No. 4, 1993, pp. 28-32.
- Холопов А., “Переходные экономики: реформа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политики,” *МЭМО*, ИМЭМО РАН, No. 1, 1998, pp. 5-17.
- БИКИ*, No. 148(7727), 11 декабря 1997г.
- Известия*, 1997. 12. 26.
- Известия*, 1997. 11. 27.
-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6. 6. 14.
-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7. 11. 26.
-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7. 12. 24.
- Сегодня*, 1997. 11. 27.
- Финансовая известия*, 1997. 11. 27.
- ロシア 東歐 經濟研究所, 『ロシア 東歐 經濟速報』, No. 1088, 1998. 4. 15.



## 부 록

- I. 러시아의 전체 무역구조(1996년) ..... 73
- II. 러시아의 對 APEC 주요국별 무역구조(1996년) ..... 73



## I. 러시아의 전체 무역구조(1996년)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27	38257.6	1	84	6422.8
2	72	7556.8	2	85	3193.0
3	76	4336.1	3	27	1720.7
4	71	3860.6	4	02	1702.9
5	84	2218.4	5	90	1657.5
6	28	2194.1	6	73	1515.5
7	31	1937.6	7	17	1447.8
8	44	1879.4	8	28	1441.4
9	74	1609.0	9	72	1413.7
10	87	1529.0	10	87	1408.7

## II. 러시아의 對 APEC 주요국별 무역구조(1996년)

## 1. 호주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2	3199	1	28	53488
2	84	1035	2	02	11953
3	22	933	3	04	6477
4	85	581	4	15	4356
5	49	374	5	84	3531
6	30	174	6	10	3416
7	35	149	7	26	2355
8	81	141	8	20	1565
9	44	122	9	21	1360
10	90	111	10	12	920

## 2. 베트남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2	40942	1	10	12253
2	84	15565	2	19	2772
3	87	13375	3	09	2305
4	27	11724	4	20	1683
5	68	6194	5	21	1375
6	85	5432	6	02	1147
7	89	5281	7	40	1041
8	31	4694	8	46	992
9	25	3163	9	08	854
10	40	3096	10	12	847

## 3. 인도네시아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2	27014	1	15	42978
2	84	1374	2	09	14465
3	48	1374	3	24	7162
4	47	1014	4	40	5822
5	40	708	5	18	5095
6	25	486	6	61	4490
7	88	350	7	64	3875
8	31	218	8	19	3013
9	74	125	9	44	1932
10	90	107	10	85	1930

## 4. 캐나다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28	35405	1	84	115041
2	27	16037	2	02	52116
3	72	14067	3	85	37301
4	87	9534	4	87	16306
5	84	2861	5	24	11462
6	26	2186	6	38	9298
7	44	1720	7	73	8982
8	39	1139	8	90	6829
9	22	1105	9	48	6655
10	85	1104	10	94	7184

## 5. 중국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2	1780393	1	02	213334
2	31	894605	2	64	86673
3	88	696089	3	08	56633
4	85	169433	4	16	44698
5	84	135175	5	85	41580
6	89	107423	6	95	37268
7	49	97341	7	89	32389
8	39	96597	8	84	27092
9	93	90511	9	29	26878
10	28	72163	10	42	25092

6. 말레이시아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2	86134	1	85	27221
2	31	13272	2	90	3721
3	48	6864	3	84	3707
4	26	2506	4	15	3065
5	25	2394	5	40	2638
6	44	1279	6	94	1229
7	49	1238	7	18	1167
8	89	1076	8	55	778
9	76	986	9	44	769
10	87	856	10	64	416

7. 멕시코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2	11919	1	73	9358
2	31	1262	2	26	7207
3	73	305	3	90	3150
4	84	269	4	39	2800
5	22	201	5	55	2101
6	26	82	6	24	1629
7	21	72	7	82	1357
8	90	49	8	22	1284
9	28	10	9	21	1150
10	85	6	10	28	800

## 8. 한국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6	265795	1	85	283366
2	89	210031	2	84	92881
3	72	208783	3	87	83499
4	87	111755	4	89	64434
5	29	51431	5	90	40487
6	28	45687	6	19	25596
7	44	39830	7	21	19415
8	93	38167	8	27	18059
9	47	34460	9	94	15583
10	75	27286	10	22	14798

## 9. 싱가포르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27	444833	1	85	89110
2	31	66076	2	84	77145
3	72	30467	3	27	27921
4	85	5214	4	90	9121
5	40	4942	5	09	4281
6	89	3889	6	15	2177
7	29	3666	7	49	1861
8	30	2785	8	21	1736
9	84	2627	9	94	1729
10	39	2440	10	40	1706

10. 미국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2	1285827	1	84	595056
2	76	1219447	2	02	451875
3	28	683165	3	85	280156
4	71	546327	4	24	277622
5	27	338559	5	90	240381
6	49	140029	6	16	85011
7	31	88659	7	10	72935
8	81	69926	8	87	71373
9	84	38555	9	21	57006
10	44	38423	10	39	56177

11. 홍콩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27	63379	1	85	13400
2	72	57518	2	90	8649
3	85	25508	3	64	7336
4	71	15334	4	84	6700
5	30	14809	5	95	1828
6	74	7558	6	22	1094
7	48	5274	7	96	755
8	39	5413	8	73	651
9	38	3489	9	54	628
10	28	3317	10	39	598

## 12. 태국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2	182172	1	17	15297
2	48	12170	2	10	12935
3	26	7823	3	84	4147
4	68	6410	4	90	3941
5	31	3600	5	40	2941
6	84	1716	6	85	2429
7	29	1460	7	20	1470
8	71	1040	8	83	1419
9	73	740	9	54	1196
10	47	612	10	16	1060

## 13. 대만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2	417377	1	84	17218
2	89	39133	2	85	16361
3	81	10330	3	90	7669
4	29	7843	4	54	6323
5	76	6432	5	39	3712
6	27	3337	6	94	2381
7	84	2587	7	95	1980
8	54	1781	8	96	1681
9	17	1127	9	64	1557
10	85	883	10	82	1158

14. 필리핀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2	135046	1	08	5736
2	27	5110	2	18	1172
3	25	1552	3	24	1106
4	89	1525	4	84	860
5	08	150	5	62	725
6	05	104	6	85	400
			7	61	335
			8	38	227
			9	20	202
			10	21	171

15. 일본

(단위: 천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순위별	상품명(HS)	금액
1	76	1242063	1	84	352380
2	44	569187	2	85	205104
3	71	435642	3	87	110364
4	27	274597	4	90	92751
5	03	133889	5	73	78164
6	72	69409	6	40	37721
7	89	68947	7	27	36465
8	28	26746	8	39	13693
9	16	17230	9	38	9868
10	81	15741	10	89	5886

## 發刊資料 目錄

### ■ 政策研究

-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 金學洙
-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的 變化 / 閔充基
- 90-03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 金宗萬
-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 孫讚鉉
-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 金泰俊
-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和 投資環境變化 / 柳在元
-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 金學洙
- 90-08 美國通商政策的 中長期方向 / 金南斗
-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 / 張義泰
-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 徐相祿
-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 姜興求
-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 金宗萬
-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 金廷洙
-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 李長榮
-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 吳勇錫
-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 朴濟勳
-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 金時中
-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 李相學
-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 曹琮和
-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 閔充基
-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 金學洙
-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的 改善과 活用方案 / 蔡 旭
-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產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 / 俞鎮守
-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 裴眞永
-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產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 金泰俊
-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 與件 / 洪裕洙
-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 金南斗
- 91-18 韓國·臺灣·日本의 產業政策和 產業構造 調整 / 柳在元
-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 金宗萬
- 91-20 東北亞 經濟協力的 與件과 展望 / 共 同
-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 鄭永祿
- 92-02 貿易 관련 政策 및 制度的 현황과 改善方向 / 共 同
-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 裴眞永
-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易障壁 / 俞鎮守
- 92-05 서비스產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產業의 國際化戰略 / 蔡 旭
-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 韓弘烈

-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의 輸入品  
流通과 流通障壁 / 趙炳澤·李永俊
-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  
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 金宗萬
-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③ 우리  
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 張義泰
-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投資  
與件 / 朴濟勳
-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 鄭永祿
-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 金益洙
-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④ 標準 및 檢査  
制度 / 成克濟
-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⑤ EC의  
貿易障壁 / 閔充基
-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 金博洙
-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  
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 金泰俊
-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⑥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 李長榮
-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 李在雄
-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 洪裕洙
-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④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 申世敦
-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⑤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 李相學
-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⑦ 政府調達  
關聯 障壁 / 崔仁範
-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⑧ 美國의  
貿易障壁 / 金南斗
-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 共 同
-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  
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 孫炳海
- 92-26 UR 총검점 / 共 同
- 92-27 換率, 金利 및 賃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 金宗萬
-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 /  
共 同
-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 金昌男
-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  
tems / 金진천
-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와 우리  
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 蔡 旭
-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 韓弘烈
-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 金時中
- 93-04 日本의 技術貿易 / 俞鎮守
-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  
金學洙
-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 共 同
-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  
吳勇錫
-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  
朴濟勳
-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 康仁洙
-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 金宗萬
-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 / 任千錫
-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 曹正鉉
-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 李昌在
-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和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 金泰俊
-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 金益洙
-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  
鄭永祿
-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  
閔充基
- 93-18 韓美間 産業構造의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 成克濟
-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의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 金尙謙
-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 金博洙

-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 共 同
-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的 方向과 課題/ 王允鍾
- 93-23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洪裕洙
-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 李昌在
- 93-25 UR 총점검(增補版)/ 共 同
-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⑥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孫讚鉉
-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본 獨逸 信託管理公社の 役割과 意義/ 朴成勳
-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金時中
-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朴濟勳
-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金益洙
-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任千錫
- 93-32 環境關聯 經濟의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李鎬生
- 93-33 亞·太經濟協力的 새 方向/ 共 同
-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表鶴吉·權皓寧
-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的 基本方向/ 朴宇熙·森谷正規
-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吳勇錫
-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孫正植·朴大燾
-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鄭甲泳
-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 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 金仁燮
- 93-40 亞·太經濟協力的 深化方案/ 共 同
-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尹健秀
-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權寧燾
-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洪裕洙
-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韓弘烈
-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裴貞永
-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韓宅煥
- 94-05 WTO 出帆과 新交易秩序: 분야별 內容과 示唆點/ 共 同
-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洪裕洙
- 94-07 外國人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王允鍾
-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ice/ 共 同
- 94-09 21世紀 東北亞經濟協力を 위한 推進戰略/ 李昌在
- 94-10 韓中經濟協력과 在中國同胞의 役割/ 金時中
-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魯在峯
- 94-12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協力方案/ 洪裕洙
- 94-13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丁相朝
- 94-14 外換自由化와 換危險管理/ 朱尙榮
- 94-15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研究/ 金龍龜·朴成勳
- 94-16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 李正淵
- 95-01 日本企業의 對中進出: 主要業種의 成果分析和 向後展望/ 申晚秀·李掌魯
- 95-0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 權才重
- 95-03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과 進入 流通障壁: 消費財 工山品 市場을 中心으로/ 金益洙
- 95-04 亞·太 經濟協力的 新構想/ 李載星
- 95-05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 立場/韓宅煥
- 95-06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李昌在
- 95-07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開發 및 評價/金寬澁
- 95-08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制度/王允鍾
- 95-09 貿易과 環境의 連繫/李鎬生
- 95-10 中國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金益洙
- 95-11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金準東·康仁洙
- 95-12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洪裕洙
- 96-01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元容杰
- 96-02 韓國大企業集團의 內部去來行爲와 競爭政策/禹榮洙
- 96-03 金融·資本自由化에 따른 金融危機 事例와 政策示唆點/朱尚榮
- 96-04 貿易과 勞動基準의 連繫/王允鍾
- 96-05 WTO 貿易自由化의 一般均衡效果分析/ 表鶴吉·鄭仁教
- 96-06 保護貿易의 費用分析/金南斗
- 96-07 派生金融商品市場의 開放과 危險管理/ 金寅培
- 96-08 WTO 體制의 定着 新通商議題/共 同
- 96-09 APEC 貿易自由化의 經濟的 效果/鄭仁教
- 96-10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李昌在
- 96-11 M&A型 直接投資에 關한 研究/王允鍾
- 96-12 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主要國의 中 小企業政策과 中小企業協力 方案/安炯徒
- 96-13 新國際貿易規範下에서의 中間財 國產化政策/金泰亨
- 96-14 CGE 模型에 의한 韓國의 輸出入構造 및 巨視經濟 中期展望/文錫雄·金建弘
- 96-15 韓國의 小規模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 的 妥當性에 關한 研究/金泰亨·鄭仁教
- 96-16 非市場經濟國에 대한 3개국(미국, 캐나다, 한국)의 反덤핑措置 研究/金完淳·嚴寅鎬
- 96-17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최근 동향과 韓 國의 GSP導入에 關한 研究/金南斗
- 96-18 國際金融市場의 構造變化와 示唆點/ 曹正鉉
- 96-19 中國 政治·經濟에 關한 國內研究의 現況과 課題/共 同
- 96-20 北韓 價格政策의 現황과 개혁방향/趙明濟
-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王允鍾
- 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王允鍾 編著
- 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金準東
- 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崔秀雄
- 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 과 示唆點/金鍾範
- 96-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李鍾華·李晟鳳
- 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課題/ 王允鍾·羅季樺
- 97-08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李昌在 外
- 97-09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金南斗 外
- 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趙明哲
- 97-11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鄭余泉
- 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 課題/金元鎬 外
- 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金寬澁 外
- 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 方案/趙顯坡
- 98-0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1997. 12~1998. 6) /張亨壽·王允鍾
- 98-02 中國 金融改革의 現황과 과제/李章揆 外
-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王允鍾·金琮根
- 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

- 에 관한 탐색연구 / 權泰亨 外
- 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成克濟
- 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11 / Byung-il Choi · Eun Mee Kim

## ■ Policy Paper

-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Inkyo Cheong
-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 Hongue Lee · Jai-Won Ryou
- 97-03 Northeast Asia's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 Sang-Don Lee · Taek-Whan Han
-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Chan-Hyun Sohn · Junsok Yang(eds.)

## ■ 연구보고

- 92-01 韓·東歐 經濟協力 增進方案 / 鄭重宰
- 92-02 投資事例로 본 對中國 投資戰略 / 白權鎬
- 92-03 베트남의 資源開發 戰略 / 李文植
- 92-04 中國의 土地使用制度 分析 / 崔秀雄
- 93-01 中國의 物資流通制度 分析 / 崔秀雄
- 93-02 中國의 改革·開放에 관한 政治的 視角 / 李輔根
- 93-03 쿠바의 經濟現況과 韓·쿠바 協力可能性 / 河泰鉉
- 93-04 轉換期 러시아聯邦의 租稅制度 研究 / 鄭余泉
- 93-05 東歐諸國의 投資環境 比較分析 / 鄭重宰
- 93-06 中國 電子産業의 競爭力 要因分析과 우리의 對應 / 白權鎬

- 94-01 中國의 地域政策과 地域經濟 發展戰略 / 崔秀雄
- 94-02 中國 鄉鎮企業의 現況과 發展方向 / 李輔根
- 94-03 中國 通信産業 發展現況과 우리 企業에 대한 示唆點 / 白權鎬
- 94-04 러시아에서의 企業環境 變化 / 鄭余泉
- 95-01 中國의 流通管理制度 改革과 流通業 開放 展望 / 崔秀雄
- 96-01 轉換期 러시아聯邦의 國家豫算과 財政分權化 / 鄭余泉
- 96-02 中南美의 新經濟秩序와 우리의 經濟協力 政策方向 / 金元鎬
- 96-03 韓國의 對印度 進出戰略 / 李成樑
- 96-04 中國의 食糧問題와 9.5計劃의 農政課題 / 崔秀雄
- 96-05 中國의 工業化戰略과 外國人 直接投資 / 全載旭
- 96-06 中國 內陸開發의 課題와 展望 / 朴月羅
- 96-07 中·東歐 국가들의 EU加入 展望과 示唆點 / 鄭余泉

## ■ 조사분석 / 조사보고

- 92-01 中國의 經濟實績과 展望(1991~1992) / 楊平燮·安鍾石
- 92-02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關聯制度 / 尹瓚赫
- 92-03 中國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의 變化和 韓國의 對中投資 / 安鍾石·楊平燮
- 92-04 슬로베니아共和國의 經濟現況 / 車相敏
- 92-05 러시아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現況과 問題 / 崔秉熙
- 92-06 海南省의 經濟 및 投資概況 / 盧浩鎭
- 92-07 체코·슬로바키아 兩共和國 工業構造 分析 / 朴相炫
- 92-08 瀋陽市 投資環境 分析 / 朴相守
- 92-09 中國經濟의 地方分權化 現況과 問題點 / 朴月羅

- 92-10 中國 國營企業의 雇傭·賃金制度 改革 / 趙顯坡
- 92-11 天津市 投資環境 分析 / 金京鎬
- 92-12 中國의 證券市場 現況 / 韓亨九
- 92-13 러시아聯邦 石油·가스産業 / 鄭珉旻
- 92-14 러시아極東地域 經濟概況과 日本의 進出現況 / 林虎祥
- 92-15 폴란드 貿易制度 分析 / 金奎坂
- 93-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와 向後 課題 / 安鍾石
- 93-02 中國의 外換管理制度 / 楊平燮
- 93-03 러시아의 商品流通制度 改革 / 尹瓚赫
- 93-04 中國의 外資企業 租稅制度 / 趙顯坡
- 93-05 베트남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과 制度分析 / 權 栗
- 93-06 上海市 投資環境 / 朴月羅
- 93-07 러시아聯邦 輸送體系 / 鄭鎔株
- 93-08 베트남 輸出加工區 開發政策과 現況 / 權 栗
- 93-09 美·中 經濟協力の 現況과 展望 / 安鍾石
- 93-10 러시아聯邦 鑛物資源開發 制度 / 崔聖基
- 93-11 칠레 經濟現況 / 張光翼
- 93-12 東歐 主要國의 雇傭·賃金制度 分析 :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中心으로 / 金奎坂
- 93-13 日本의 對中 經濟協力 實態 / 金京鎬
- 93-14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 朴相守
- 93-15 멕시코 經濟現況 / 金榮敦
- 93-16 브라질의 資源開發現況 / 朴英鎬
- 93-17 中國의 建設業 現況과 進出 可能性 / 趙顯坡
- 94-01 東歐 主要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政策 및 制度 / 金奎坂
- 94-02 中國의 自動車 産業 現況과 韓·中 協力方案 / 安鍾石
- 94-03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 / 朴相守
- 94-04 主要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和 韓國의 ODA 支援方向 / 權 栗
- 94-05 主要 先進國의 對印度 經濟協力 現況과 우리나라의 經協方向 / 趙忠濟
- 94-06 러시아의 輸出入制度 / 尹瓚赫
- 94-07 아세안 自由貿易地帶의 形成과 우리의 對應方案 / 楊平燮
- 94-08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外國人投資 制度 / 李哲元
- 94-09 러시아의 雇傭·賃金制度 / 徐承源
- 94-10 러시아의 銀行制度 / 李聖揆
- 95-01 러시아 證券制度 및 市場 現況 / 崔秉熙
- 95-02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推進 現況 / 鄭鎔株
- 95-0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租稅制度 / 李哲元
- 95-04 시베리아地域의 賦存資源 및 開發現況 / 徐承源
- 95-05 ODA 運用體制 改善方案 / 權 栗
- 95-06 韓·인도네시아 經濟協力 強化方案 公的開發援助(ODA)를 中心으로 / 金完仲
- 95-07 中美共同市場(CACM) 및 會員國別 經濟現況 / 朴英鎬
- 96-01 西方의 러시아 石油·가스부문 進出과 우리への 示唆點 / 徐承源
- 96-02 韓國企業의 對CIS 投資實態 및 課題 / 李哲元
- 96-03 러시아 經濟地域의 經濟·社會現況 分析 / 鄭鎔株
- 96-04 러시아의 최근 兩大選舉와 向後 政策變化 展望 / 崔秉熙
- 96-05 對미얀마 經濟協力 強化方案 / 鄭在完
- 96-06 멕시코의 公企業 民營化 推進過程 分析 / 金亨洙
- 96-07 브라질의 民營化 推進現況과 向後 展望 / 鄭善祐
- 96-08 中國 國有企業 民營化的 展開과 展望 / 趙顯坡
-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 朴相守
-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 鄭在完
-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

- 鄭在完
- 97-04 西方的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李哲元
-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徐承源
-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鄭在完·權耿德
-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李聖燾·崔秉熙
-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金完仲
-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崔義炫
- 97-10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蔡 旭
- 97-11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취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李鎬生
-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權 栗
-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洪翼杓
-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金琮根
-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羅成燮
-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  
與件 전망/鄭仁教·李昌在 編著
- 98-03 한국과 멕시코의 外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  
조조정과제/趙潤濟·金鍾燮
-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李永雨
-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障礙요인 조  
사연구/鄭聖哲·李明振
-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  
에 관한 연구/朴成勳
-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 APEC 정  
책/李載裕·李載榮
- 92-02 러시아聯邦便覽
- 92-03 베트남便覽
- 92-04 헝가리便覽
- 92-05 폴란드便覽
- 93-01 1993 러시아便覽
- 93-02 山東省便覽
- 93-03 遼寧省便覽
- 93-04 우크라이나便覽
- 93-05 카자흐스탄便覽
- 93-06 불가리아便覽
- 93-07 루마니아便覽
- 93-08 몽골便覽
- 93-09 臺灣便覽
- 93-10 멕시코便覽
- 93-11 吉林省便覽
- 93-12 1993 中國便覽
- 93-13 쿠바便覽
- 93-14 파키스탄便覽
- 93-15 인도便覽
- 93-16 黑龍江省便覽
- 94-01 체코공화국便覽
- 94-02 우즈베키스탄便覽
- 94-03 1994 러시아便覽
- 94-04 러시아 極東地域 便覽
- 94-05 미얀마便覽
- 94-06 1994 中國便覽
- 94-07 1994 폴란드便覽
- 94-08 스리랑카便覽
- 94-09 四川省便覽
- 94-10 브라질便覽
- 94-11 칠레便覽
- 94-12 아르헨티나便覽
- 94-13 인도네시아便覽
- 94-14 1994 베트남便覽
- 95-01 1995 몽골便覽
- 95-02 1995 헝가리便覽
- 96-01 페루便覽
- 96-02 1996 멕시코便覽

---

■ 국별편람

---

92-01 中國便覽

96-03 1996 불가리아便覽  
96-04 파라과이便覽  
96-05 필리핀便覽  
96-06 호주便覽  
96-07 광둥성便覽  
96-08 방글라데시便覽  
96-09 말레이시아便覽  
96-10 호북성便覽  
96-11 1996 러시아便覽  
96-12 江蘇省便覽  
96-13 뉴질랜드便覽  
96-14 1996 루마니아便覽  
96-15 콜롬비아便覽

96-16 홍콩便覽  
96-17 우루과이便覽  
96-18 하북성便覽  
96-19 베네수엘라便覽  
96-20 1996 카자흐스탄便覽  
96-21 1996 인도便覽  
97-01 태국便覽  
97-02 1997 파키스탄便覽  
97-03 싱가포르便覽  
97-04 臺灣便覽  
97-05 슬로바키아便覽  
97-06 파나마便覽  
97-07 1997 브라질便覽

## 李載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5)

미국 American Graduate School of (1981)

International Management 국제경영학 석사 (1981)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영학 박사 (1987)

**現在**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겸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著書** 『제조업의 효율적인 해외투자 정책방향』 (1994), 『초일류기업의 비즈니스 대실수』 (1995),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학』 (1996).(공저)

## 李載榮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학사 (1988)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석사 (1992)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박사 (1995)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사후(Post-Doc.) 과정 수료 (1997)

**現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著書** 『러시아에서 정부의 역할: 시장경제 도입과 관련하여』 (1986), 『러시아의 대외경제 정책 변화와 한·러경제협력의 미래』 (1997)

『구소련지역의 재통합 움직임과 전망』 (1997)

『개혁 이후 러시아 극동의 경제현황과 외국인 투자』 (1996)

『러시아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외 다수

調査分析 98-07

APEC 연구시리즈 ⑧

---

###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

1998년 10월 31일 인쇄

1998년 11월 1일 발행

---

발행인 李景台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056, 1179 FAX: 3460-1162, 1144

---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73-7011 대표 李鎬烈

---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7051-1

89-322-7044-9(세트)

값 5,000원